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2월 1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재물을 얻는 것은 본인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는 무수한 중생의 수고로움이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 것을 고집한다거나 다른 이의 노고를 빼앗는 것도 모두 5계 가운데 투도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일으키고, 정당하게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곤궁을 외면하고 혼자만 잘 살려고 애쓴다. 탐욕심이 많이질 않는 것이다. '한보사태'를 보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총체적 탐욕심에 허탈해 하고 있다. 우리 심에서 재물은 어떤 뜻을 하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부처님 가르침이 절실하다. 〈편집자주〉

재물을 모아 쌓아놓지만…

논밭 택지 황금 우마 노비 용인(傭人) 부녀지 친족 기타 여러가지 욕망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뭇 번뇌가 그를 이겨 위난이 그를 짓밟는다. 그런 까닭에 과로움이 그를 따라 다닌다. 마치 부서진 배에 물이 스며들듯이. 〈경집〉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가 되어서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 놓지만 하루 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은 그 몸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 〈생경〉

시주한 물건이나 대중의 것 나라의 것 개인 소유물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지 말라. 세금을 속이거나 배상을 안내는 것은 모두 훔치는 행위이다. 〈시미십계법〉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인이 있는 물건이든 도둑들이 훔친 것이든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자신이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수단을 써서 훔쳐서는 안된다. 〈법망경〉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옳지 못한 물건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 〈시미십계법〉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항상 깨끗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기를 좋아하며, 무엇이든지 주면서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물설재경〉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 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무명의 전도심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니건자경〉

온갖 중생이 만족할 줄 몰라서 항상 남의 재물을 구해 그릇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미땅히 저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신구의업(身口意業)의 바른 생활의 도리 속에서 살게 하리라. 〈화엄경〉

"할머니 할아버지 절에오세요" 16면
근·현대 고승 서간문집 2권 12면
팔만대장경 '서울 나들이'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서남아어 연구소 개원

빠르면 3월중…초기경전 번역·연구인력 양성

승가대 김령교수 추진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티벳어 불교경전 번역과 연구인력을 양성할 '서남아시아 고전(古典)연구소'가 설립된다.

중앙승가대학 객원교수 김령씨는 최근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밝히고, 2월말 발기인모임을 거쳐 빠르면 3월중 창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는 불교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인도고대의 종교 철학 등의 고전을 기록한 언어로, 불교경전의 1차 원전어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들 언어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5명 안팎에 머물러 있다.

김교수는 "산스크리트어 연구는 불교사상의 원류를 찾는 근본적인 작업"이라며, 인도고대어의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연구소 설립을 위해 후원회 결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김교수는 종단과 종립대학,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구소는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티벳어 경전의 한글 번역, 인도고대어 전공자 육성, 원전 정리사업,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월 1회 세미나 개최와 연구논문집 발간, 불교계 지도자 및 교수 연구자 기업 및 정부의 정책부서 담당자 대상의 인도고대 언어·종교·철학 주제의 강좌와 위탁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대학 학사처장 마징스님은 "빨리어는 근본불교의 원형을 밝혀낼 수 있는 열쇠라는 점에서, 산스크리트어는 중국의 한역(漢譯)경전에 의존했던 지금까지의 한국불교 및 불교학연구의 관행을 벗어나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봉수교수(동국대·불교원전번역연구소장)도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가 부처님의 원음을 가장 생생하고도 순결하게 전해주고 있으며 또한 불법의 원초적인 형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김령교수는 86년부터 89년까지 캐나다 랠거리왕립언어학교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전공, 박사학위와 교수자격을 취득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산스크리트어 전문가이다.

한편 기업체에서도 서남아시아 진출을 희하고 있으나 현지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계획만 세우고 있거나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체의 관심도 매우 높다. 〈정성운 기자〉



소쩍새마을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2월 8일 장애인·고아·무의탁노인들이 살고있는 불교복지시설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에도 설이 왔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1백50여명의 원생들이 부처님께 먼저 새배를 올린 후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원주=고영배 기자〉

승가대학령 전면 재개정 촉구

조계종 12개본사주지 강원 활성화 방안도

조계종 12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3일 유성관광호텔에서 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승가대학령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결의 내용이 원만히 관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결의사항은 △승가대학령의 전면 개정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 수립 △학년 인원제한 철폐 및 총정원 20~70명으로 조정 △기존 강원 선인가 및 유예기간 2년 설정 △교수인원 2인 이상으로 하향조정 △비구니강원 의견수렴 등이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또 본사주지회의 정례화를 총무원에 촉구하는 한편 전통강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구본사의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주사 불국사 동화사 금산사 송광사 쌍계사 수덕사 대둔사 직지사 마곡사 백양사 화엄사의 주지스님 및 부주지스님이 참석했다.

"성역없는 수사하라"

한보사태 관련 성명

조계종 12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3일 한보철강 부도사태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한보사태의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본사주지들은 또 성명을 통해 △노동법 안기부법의 조속한 재개정 △공무원시험 일시의 일요일 환원과 △김한규 총무처장관의 사과와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주장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한국의 美를 상징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천년불심이 스며 있습니다. 불교문화재는 그래서 성보입니다.

불교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숨결과 얘기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과 정서의 원형질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느끼고 無言의 설법 듣는다"

현대불교신문은 이같은 의미를 대중속에 심고 확대하기 위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매월 주제를 잡고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이 행사는 종교적 특수성과 예술적 보편성이 만나 이룬 민족문화의 핵심으로 다가가는데 한 몫을 할 것입니다.

2월 테마여행—통도사

가람배치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

영축산 기슭에 자리한 불보종찰 통도사의 가람배치는 독특합니다. 넷물을 따라 동서로 같게 상로·중로·하로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과 불상을 안모신 탑빈 대웅전(국보 290호)에서 통도사의 근본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웅전 연화문 축대의 정교함과 영산전의 팔상탱화, 가섭존자가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의 봉발탑, 감지금니화엄경변상도 등 통도사 국보·보물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람과 자연과 인간과 불심의 조화에 또한번 감탄하실 겁니다.

통도사 박물관장이며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인 법하스님이 안내 강의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 첫 회에 동참하시어 97년을 더욱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참가 안내

◇출발: 2월 23일(일) 오전 7시 · 조계사 앞
◇안내: 법하스님(통도사박물관장) ◇회비: 3만원(중식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주여행사 (02)738-81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5333(임동수)
입금후 한주여행사로 연락바랍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96년도판 현대불교합본집 발간

1996년 한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을 묶은 〈96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제시해 온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96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합본집은 불교시사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그리고 신행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 수록내용: 1996년 1년분 (60호~108호)
■ 가격: 5만원(우송의 경우 별도의 발송비 5천원이 추가됩니다)
은행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현대불교)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협 053-01-227471
· 우체국 010041-0255243
■ 문의:
현대불교신문 기획관리부 (02)737-8881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전동機, 계전器, 용접기, 철탑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풍력터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전설비, 화학장치, 식도설비


자동화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계장설비, UPS, PLC 등 전력전자, 물류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사 설

귀순자 포교대책 급하다

북한의 학정을 피해 귀순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한 2천여명의 탈북자 가운데 남한땅을 밟은 사람은 약 600여명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들을 환영하고 직장과 주거를 마련하여 정착을 유도해왔다. 정부의 가시적 물질적 지원에 발맞추어 불교계는 지친 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새로운 통일시대의 불교의 선봉으로 삼는다는 뜻에서 지난해 2월 귀순불자들의 모임인 남순지장회를 결성했다. 그런데 그 남순지장회가 해체 위기에 놓였다. 한때 42명이나 되던 회원들이 점점 줄어 8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탈북자들은 이질적 체제와 교육을 받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체제와 생활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사회주의적 배급과 명령에 순응해온 그들에게 남한 사회는 적나라하고 무자비한 경쟁의 무대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들은 이 전쟁에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의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적응에 실패한 그들 중 상당수가 "차라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조사결과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지원과 관심이 귀순 당시 기자회견으로 천편일률적인 깜짝쇼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가올 통일시대의 견인차가 아니라 제3국의 수입된 노동자들처럼 중대한 사회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이다. 그 다음은 물질적 지원과 관심이다. 우선 안정된 직장이다. 그들의 정착금은 지금의 주거비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80%이상이 월 수입 100만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꾸려가고 있다. 이들이 남한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는 능력과 기능을 가질 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한다.

남순지장회가 출범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당부했다. "고매한 진리, 팔만장경의 교학을 가르치기 이전에 이 위대한 공감과 동정의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생의 고통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아픔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 고통 자체에 다가가지 않고 삼계(三界) 너머의 열반(涅槃)의 세계를 설교하고 있어서는 불교의 진리가 먹혀들 리 없다."

종단과 사찰은 불법에 대한 포교 이전에 이들의 안정된 생활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물론 일차리 주선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종교도 귀순자들의 물질적 기반을 다지고 안정시키는 일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불교계가 알선한 직업이 안정감과 고정수입을 보장해주리라는 믿음이 확산될 때 불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폭될 것이다.

총무원은 귀순불자들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열어, 이익금을 국내의 불우이웃과 더불어 귀순동포들을 위해 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순지장회도 각 사찰이 귀순자 하나씩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 한다.

현재 귀순자 포교전선에 나서고 있는 은해사 법타스님과 광명선원 초격스님처럼 각 사찰의 주지스님이 귀순불자를 수양아들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같다. 그렇지만 불교계는 귀순동포들에 대한 포교를 장기적 안목에서 구상해야 한다. 탈북과 귀순은 이제 시작이다. 북한은 식량이 공식적으로 바닥났다고 선포했고 핵쓰레기를 반입시키면서까지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일정한 계기를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 남한으로 대량 유입되는 사태가 몰아 닥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불교계는 천수천안의 가피력으로 대량의 귀순자들을 수용하고, 안정시키며 포교할 공식적 단체를 설립하고 재정을 확보하며, 구체적 프로그램을 짜는 종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열린마당

조계종 승가대학령

조계종 승가대학(강원)령 시행을 둘러싸고 교육원과 교구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2개 교구본사 주지들은 지난 3일 승가대학 인가와 관련, 회의를 열고 강원령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교육원은 학인정원의 하향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장애에 부딪혀 승가교육 체계화 자체가 흔들릴까 걱정하고 있다. 교육원의 입장과 승가대학 강주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교육원 입장

학인·강사 수 등 인가조건 교육 질 향상

승가대학 인가와 관련, 12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결의문을 접한 교육원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원령 제정의 목적인 '기본교육기관의 체계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승가대학(강원)에 대한 인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승가기본교육을 정착시키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인수 강사수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을 적정하게 갖추도록 하는 인가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31일 열린 교육원과 종회교육분과위(위원장 종광) 연석회의에서도 학인수 하한선의 하향조정, 상한선 설정, 기초선원 입방자수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나아가 승가교육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쟁점부분의 이견을 좁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5년 8월부터 지관 고산스님 등 교육원로와 중앙종회 총무원과 강원 강주스님들을 망라한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도법)에서 1년이 넘는 동안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승가대학령을 마련하고 4개월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했는데 이제 와서 교구본사에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교육원 실무자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자칫 이후 중앙종무기관의 종책이 시행단계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전례가 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교구본사에서 승가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며, 승가교육 체계화를 이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운〉

승가대학령 일제

■ 95.8.30. 도법 법성 향적 수진스님 등 17명을 위원으로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를 발족.
■ 96.3.6. 승가대학령 입법예고.
■ 96.7.2. 승가대학령 공포
■ 96.12.3. 교육원, 승가대학령에 따라 이날까지 통도사 범어사 등 7개 승가대학 인가, 삼선승가대 조건부 인가. 송광사 법주사 쌍계사승가대학은 인가신청서 접수.
■ 97.1.20. 총무원장 교육원장, 종단미인가 승가대학 학인 학적변동 권고 공동담화문 발표.
■ 97.1.24.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전통강원 폐강조치에 따른 전승련 대책위' 구성.
■ 97.1.30. 전국교직자연합회(회장 수진), △학인정원 20명 이상, 2~3년 유예기간 두고 전통강원 우선 인가 △강원령 전면 재검토 △교육법·총림법·강원령의 상치부분 개정을 교육원에 요구.
■ 97.1.31. 중앙종회 교육분과위·교육원, 승가대학 인가와 관련 연석회의. △학인수 하한선을 30~40명으로 조정하고 △상한선을 설정하며 △승가대학령과 관련해 승가교육 당사자의 토론회 개최 검토키로 함.
■ 97.2.2. 전승련, △전통강원 우선 인가 △전통강원 학인수 자율화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 수립 △전통강원 역할 강화 △승가대학령 전면 재검토 △담화문 발표에 대한 사과 등 6개항을 결의.
■ 97.2.3. 12개 교구본사주지, △승가대학령 전면 재검토 △기본교육 미이수자 대책 수립 △학년 인원 제한없이 총정원 20~70명으로 조정 △교수인원 2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을 교육원에 요구.

전국 승가대학 강사·학인 현황

학 교 명	강사수	학인수	학 교 명	강사수	학인수
통도사★	3	35	운문사★	7	226
해인사	5	120	청암사★	3	90
쌍계사●	2	24	봉녕사★	3	126
송광사●	5	56	삼선승가대	3	34
백양사★	2	26	직지사	5	9
범어사★	2	24	불국사	2	7
법주사●	3	12	화엄사	3	12
동학사★	5	127			

★표는 인가, ●표는 인가신청

인가기준 문제였다

학인수에 비중…사자상승 전통 불인정

도일〈법주사 승가대학 강주〉

이번에 발표된 '강원령'이 종단의 3대 사업의 하나인 도제 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다. 교수진을 확보하고 그 안전성을 도모하여 교육의 내실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세속적인 교육방법과 유사하게 되어 종지를 구현하는 도제양성과 거리가 멀어질까 염려된다. 인가의 기준을 지금까지 교육해온 역사를 무시하고 학인수에 비중을 둔다면 재고해 볼 여지가 있고, 수행하는 방법도 부처님의 말씀에는 대기설법이라 하였는데 단일화를 통한 획일주의로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미 종단은 모든 교육을 통일화하여 교육행정을 체계화 하였다고 본다. 그 한 예는 기초교육기관인 행자교육을 이수해야 예비승려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을 이수하고 기본 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교육원의 대책은 전혀 없다. 강원과 기초선원 동국대학교(불교대학) 중앙승가대에 진학하여 4년간 수학하면 정식 스님이 된다. 따라서 스님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교육환경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조성되어야 한다.

시행에 있어서도 착오가 있다고 보인다. 1년이내(97년 7월까지) 조건을 갖추어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강원령에서 밝혔으면서 6개월여를 소급하여 입학제한과 학인 전학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른 여타 조건을 충실히 갖추고 학인 충원만 준비하고 있는 강원의 경우 그 가능성을 없애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또한 정원의 상한선 부분은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학인수가 많다고 해서 과연 교육도 충실하단 말인가. 사자상승의 교육은 교육이 아닐까. "학생은 있어도 제자가 없고,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그런식의 교육이 된다면 본래 도제양성을 하려는 근본취지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목어

"기대보다는 협력을"

정병조교수가 한국불교연구원의 새 이사장에 취임하던 날이다. 축사에 나선 원로학자 김종서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

"회원 여러분은 새 이사장에 대한 기대를 최소화하는 대신 협력을 최대화 하십시오. 정박사는 회원들에 대한 기대를 최소화하고 노력을 최대화 해주십시오."

기대란 바라는 마음이다. 누군가에게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원망 또는 비방하기 일쑤다. 부처님께 복을 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자기 정성과 참회가 부족한줄 모르고 영험이 없다고 한다.

김재웅법사는 한해를 시작하는 설법에서 '바라는 마음보다 주는 마음을 연습하자'고 강조했다. 주는 마음은 협력하는 마음이다. 힘을 모아 서로 돕는 협력은 보시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일이 쉬워진다. 우리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다. '한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다 보면 여러마음이 한마음이 된다. 너와 나의 벽이 무너진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누군가와 서로 협력하려면 상대방의 처지에 서 보는 것이 지름길이다. 내가 진실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지 않으면 협력이 어렵다.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주고픈 마음이 간절할 때 협력은 최대화 된다.

일본의 유명한 기업 마쓰시다(松下)전기의 마쓰시다씨가 어느 종교본부에 가서 큰 충격을 보았다. '우리 종업원은 월급을 받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보수로 일을 할까' 마쓰시다씨는 스스로 답을 찾았다.

"뭔지 모르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돈을 벌고 회사를 더 키울 생각만 했는데 이제부터 사회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회사의 사명으로 삼자."

사원들도 사장의 결정에 찬성했다. 협력 단결하며 일에 보람을 느꼈다. 세계적인 마쓰시다와 내소날전기는 그 협력의 결실이다.

정축년 설과 정월 대보름에 우리는 기대보다 협력을 최대화하는 기도입재를 하자. 곳곳에 화기(和氣)가 감돌길 발원하면서.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현대만평 박구원



경로당 대신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봉선사 통신강원

통신강좌 전문의 불교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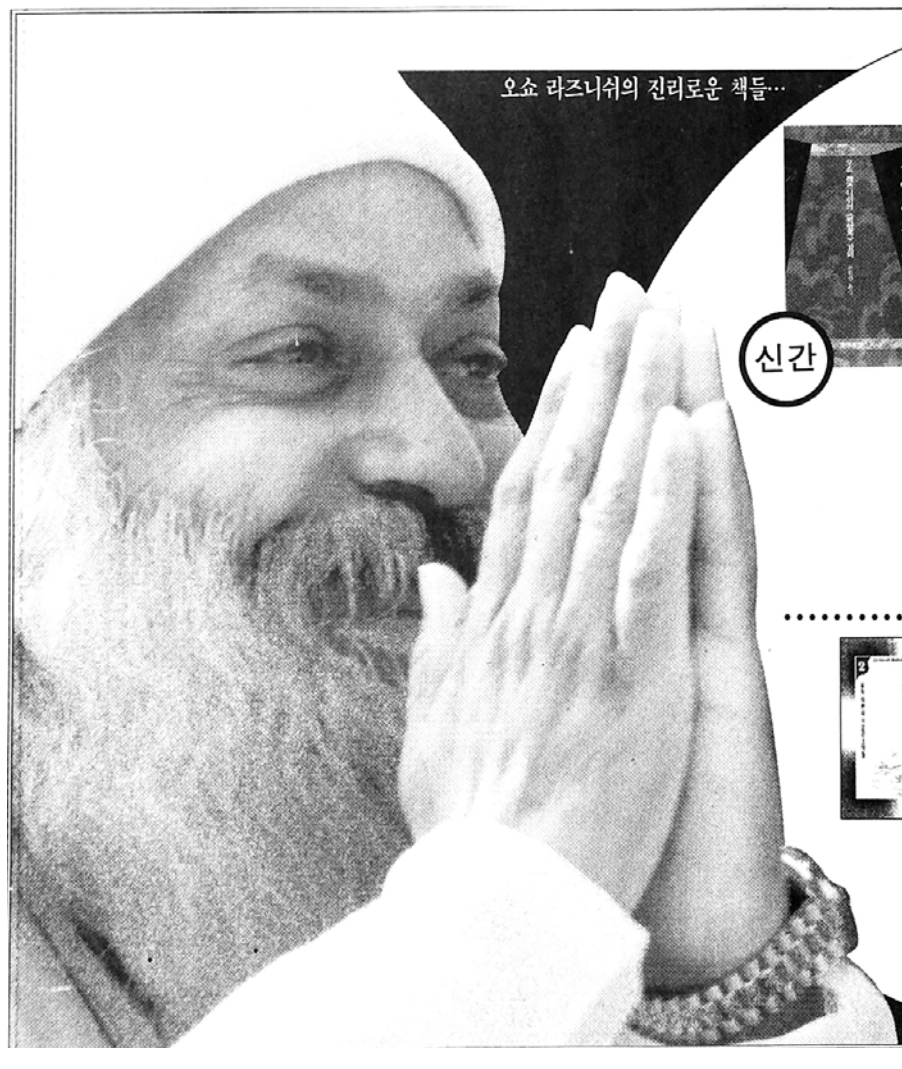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 경전강독
● 교양의식 ●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관리부재…예정된 결과"

"종교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난달 발생된 불교방송 경리사고를 바라보는 교계 안팎의 반응이다. 이번사건으로 불교방송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약 24억여원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불교방송의 위상추락과, 이 사건의 여파로 불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불교방송 경리사고를 보는 교계의 눈

현저 불교방송이 사고수습을 위해 구성했던 자체 대책위원회(위원장 영배 심의실장)는 사실상 해체되고 재단이사회 차원의 수습위원회(위원장 영담 상임이사)가 구성됐다. 또 조계종총무원도 지난 1월 27일 불교방송 대책위(위원장 성관 문화부장)를 구성했다. 이와관련 총무부장 혜창스님은 대책위 활동에 대해 "징계보다는 수습차원의 활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누적돼온 불교방송국의 구조적인 병폐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르 분석되고 있다. 1차적으로 김선도 등 피의자에게 문제가 있지만, 특히 지난 95년 이후 1년 가까이 최고경영진의 공석으로 주인없이 방만하게 운영돼온 결과가 이같은 최악의 사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전문인이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경리업무체계의 허점과 경영진의 소홀한 관리가 거액의 회사재산을 횡령 유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발생 직후에야 밝혀진 최고경영자도 알지 못한 외환은행 마포지점의 불법 당좌거래 개설과 이를 통한 어음 임의 발행 및 할인유통, 회사어음과 사용인감 도두를 경리부 차장이 관리하는 폐단의 지속 등은 사건의 발발을 위한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했다. 또 한일은행 마포지점에서 발행된 백지어음으로 위조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어음, 그리고 일시가수금으로 처리돼 입출금이 분명하지 않은 출처불명의 돈, 김선도 명의의 사장임금 지급통장개설과 불법담보대출 등 이번 사건은 경영진의 경리업무에 대한 무지와 관리 소홀, 무관심이 함께 낳은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방송은 지난해 3월 조해형사장이 취임, 전문경영인의 이력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를 예상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불교방송 사장 취임 이후에도 나라기획 회장직을 겸직했던 조해형사장과, 상무직외에 관리국장, 재단사무국 사무국장직까지 겸직하고 있는 송병욱 상무 또한 제대로된 관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불교방송 지방국확대 등 불교방송의 외형적인 팽창과 더불어 내적인 변화와 질적 성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경제불황을 이유로 감량경영만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대에 역행하는 경영구조로 일관해 왔던 점은 피할 수 없는 경영의 오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공금횡령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인 불교방송 대책위원회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방송기자재 이중지급횡령, 지출결의서 위조변조 등을 밝혀냈다. 위원장 영배스님은 "사실과 증거의 확인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분석, 적절한 대안마련만이 불교방송이 살 수 있는 길이다"고 밝혔다.

재단이사회 수습위원장 영담스님은 "회계감사의 범위를 94년까지 확대 조사해 방송국 자금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고 회계경리시스템의 재구축과 방송국 합리화 방안등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단이사회 수습대책위가 수습과 재발방지에 대한 증대한 고리역할을 맡은 셈이다. 이번 사건을 한가닥의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내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었다.

불교방송은 사건발생 직후 사건축소와 은폐등 미진한 대응으로 이미 조기수습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경영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이번 사건으로 불교방송의 이미지와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불심으로 세운 불교방송 정재가 마구 유용 횡령되고 직원들의 사명감 실종에 교계의 실망감 또한 크며 정작 사원들의 사기도 말할 수 없이 저하됐다.

또한 이번 사건과 함께 불거져 나온 방송국 고위관계자의 공공연한 방송국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언급과 이와 관련된 고위관계자의 일부관련 설등 추측과 의혹도 정확한 사실과 증거확보를 통해 앞으로 명백히 밝혀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조속한 수습과 마무리를 통해 과거 불교방송문제가 발생할 때면 고개를 들고 일어났던 방송국과 진흥원, 그리고 종단의 방송국 운영권을 둘러싼 미묘한 양상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교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 다보빌딩에 위치한 불교방송 전경.

회계 시스템 구축등 경영 합리화 방안 절실
진상조사 철저…운영권 줄다리기 재현 '금물'

이은자 기자

'참회의 삶'을 살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김 두 원
〈광주 · 전남불교신도회장〉

올바른 삶 확신 설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 참회란 잘못의 뉘우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참은 참마(懺摩)의 준말이며 회(悔)는 참마의 번역으로,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懺)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인 회(悔)의 두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해탈의 삶은 몸과 말과 뜻 속에 있는 잘못된 행위를 지양하지 못하면 성취될 수 없으며 참회란 내 마음속에 뒤틀림과 잘못됨을 고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삶을 창조적으로 건설해 가는 활동이다. 잘못과 허물은 자아와 세계가 맞물린 인간의 삶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죄업은 본래 생겨난 곳이 없다는 바른 사유와 지난 잘못을 고쳐 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통해 참조적인 행위로 바뀔 수 있다.

참회에는 사참과 이참이 있으며, 사참은 불보살님께 자신의 잘못을 몸과 말과 뜻으로 드러내서 참회하는 방법이다. 또 이참은 본래 일어난 바 없는 죄의 참모습을 관찰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참회법이다.

그리고 참회법에는 규정된 작법에 따라 작법참회, 취상참회, 무생참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작법참회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죄업을 소멸시키는 취상참회, 그리고 마음을 바로하고 단정히 앉아 불생불멸의 실상을 관하여 무명번뇌를 끊는 무생참회가 있다. 작법참회와 취상참회는 사참이며 무생참회는 이참에 속한다.

어쨌든 참회는 파계로 인한 고통과 계행으로 인한 기쁨이 명확히 밝혀져 가슴에 와 닿을 때 다시 범하기 쉬운 잘못조차도 미리 깨닫고 조심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성하는 생활까지도 반성하여 올바른 삶에 대한 확신이 설때 비로소 진정한 참회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원각경〉에서 맡세에 태어난 중생이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자함에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전세의 업장때문이라며 마땅히 참회에 힘쓰라 하셨다. 증애 질투 첨곡을 끊고나서 가장 뛰어난 진심(眞心)을 구해야 한다.

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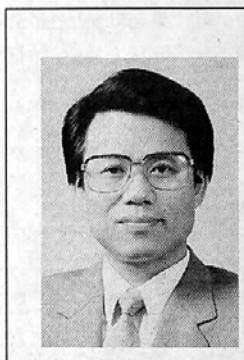
끝없는 탐욕의 종착역

총 5조가 넘는 특혜금융을 받은 한보그룹의 부도사태는 우리 경제는 물론 정치 · 사회 전반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국민 모두를 절망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외채 총액이 천억달러를 상회하고, 작년 한해 무역적자 2백30억달러, 금년 1월 무역적자가 사상최대인 34억달러에 이른다. 노동법 파동에 따른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1월말 현재 3조원, 수출도 3억1천여만 달러의 차질을 빚었다 한다.

'한보사태'에 국민 절망감

이것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보그룹의 대형부도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로인해 수많은 연관 ·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금융계 파동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주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완공을 위하여 년내에 1조원원 자금을 추가지원키로 하였는데,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정상가동을 해도 연간 4천8백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니 실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 관 희
〈경찰대 교수 · 법학〉

그리고 한보그룹의 총수는 과거 수서지구 택지분양사건 등에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한보철강을 이유로 대부를 받아 계열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로서는 국가나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하나의 생존전략을 구사했겠지만, 목적을 위하여 수단 ·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탐욕스러움에 그저 아연할 뿐이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그 1차적 책임은 정치권에서 져야 한다고 본다. 누가 보아도 5조원대의 대출은 관치(官治)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권의 결정 또는 압력없이 은행장선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우리 경제가 대기업 · 재벌 중심의 경제이니 만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그 선택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일단 선택했으면 부도사태는 어떤 경우라도 막았어야 했었다. 극단적으로 전과자(한보 총수)에게 정치자금 · 뇌물 등을 받고 한통속이 되어 무책임하게 놀아난 꼴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대통령도 단순한 '대형금융사고'가 아닌 '전형적인 부정부패의 표본'이라고 성격규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사태에서 관련 정치인, 관료, 금융계 인사는 마땅히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계기로 특히 정치권의 분위기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정치권은 경제계에 비해 아직까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후진적이고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계의 분위기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官)에 의존하여 특혜를 받아 횡재하려는 불합리한 분위기가 잔존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 등을 망각한 많은 로비자금, 접대비 등이 경영에 주름살을 주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경제계도 비합리적인 경영체제를 완전히 불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의 의식도 문제이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일반 국민의 민주적 윤리의식 수준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민주시민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라는 잠언이 그것이다.

민주적 윤리의식이란 구체적으로 공공심(公共心), 절대의식, 준법정신, 관용과 타협, 인간애 등의 덕목이다.

선량을 선별못한 잘못도

만약 우리 국민 모두가 검소하게 살고, 질서를 잘 지키고 준법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않는 차분한 분위기라면, 한보의 정치인 로비가 통했겠는가. 물론 오늘의 한보사태는 한보그룹 총수와 집권여당 · 정부쪽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업윤리를 포함한 국민일반의 민주적 윤리의식과 연관지어 크게 보아야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 민주적 윤리의식의 성숙은 결국 국민 각자의 인격완성에의 접근을 뜻하고, 인격의 완성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견성성불(見性成佛)이요,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부처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경제도 회생시킬 수 있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활 속의 불교 (109)

진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은 바로 우리들 자신

"지금 처한 당장의 경계부터 푹 쉬어 보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집착이다. 선과 악,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벗어나 푹 쉬어 보라. 지난 날의 모든 업도 지금 이 순간의 내 속에 실려 있으니 지금 한생각 크게 놓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셈이 된다. 그러다가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 그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놓아버려라. 당신의 잠재 컴퓨터는 점점 짐이 가벼워져 결국은 텅 빈 듯 홀가분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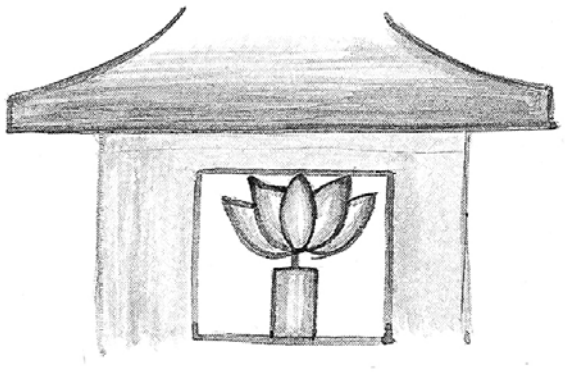
불법 수행의 핵심은 방하착(放下着)에 있다. 마음 비우기, 무소유의 삶이란 바로 방하착-집착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릇에 담긴 물건을 비워내듯이 마음에 가득한 온갖 욕심 · 상념들을 비우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요 바른 수행의 근본이 된다.

무소유의 삶이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좀처럼 쉽지않다. 다만 한순간이나마 마음을 비우기도 어렵다.

우리는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떼어낼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두려고 애를 쓴다. 고통 · 괴로움 · 미움 · 공포 · 불안 등은 버리려 하고 기쁨 · 사랑 · 만족 · 이익 등은 잡아두려고, 더 키우려고 한다. 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 · 명예 · 권력 · 자존심 따위에 대한 집착은 생명, 건강에 버금갈 정도로 강하게 마련이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새의 뼈 속은 비어있다. 멀리 높이 날기 위해서다. 그러나 육질(肉質)이 무거운 새들은 높이 멀리 날지를 못한다. 개중엔 아예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사람은 집착의 무게 때문에 높이 날지 못한다. 탐욕과 갈애를 양 날개로 갖고 있는 한 훨훨 홀가분하게 날 수 없다. 아니, 날기는 커녕 추락한다. 누구나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라지만 방하착을 실천하지 않기에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단계를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수억겁에 이르도록 몸을 바꿔가며 진화해온 이유요, 지금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난 목적이다. 그렇지 않고 가령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돈 · 권력 · 명예 · 자존심 때문에 태어났다거나 우리가 목마르도록 집착하는 사랑 · 만족 · 이익 때문에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이뤄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방편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화의 종점-인간완성 뿐이다. 불법에서 말하는 열반, 성불이다.

열반이란 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말한다. 완벽한 방하착의 상태-더 이상 내려 놓을 것도, 내려 놓는다는 생각하지도 사라지고 없는 상태이다. 말하자면 마음이 어느 한 곳에도 매이지 않은 것,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 마음을 더 이상 물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이름이다.

그러나 산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신의 생명 · 건강 문제로부터, 자녀들의 문제로 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 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집착하지 않음으로서 비로소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고, 관여하되 관여하지 않는 길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다.

우리가 최상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우리의 욕심 · 자부심 · 갈애… 따위가 우리의 진화를 방해한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 놓기만 하면 우리는 홀가분해 질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성불도 가능해진다.

방하착은 나를 위한 가장 큰 공덕 쌓기요 나아가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된다.

협 찬 : 주 인 공

법회 안내

원심선원(02)606-2153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안등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어린이학생법회 일 오전9시30분

약수사(051)555-4332
안등기도 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영주암(051)754-2210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육바리밀 매월 6일(음) 오전10시
연등합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대안정사(0334)675-7707
정기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안등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사경기도 18~24일(음) 오전10시
반야회 대월 첫째 토 오후7시
공덕회 대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사(0392)33-2688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신도법회 매월3·15일(음) 오전10시

사문선원(0394)31-3125
초하루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대원사(0394)33-2603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삼락사(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신도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보현사(0391)42-9437
신도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단봉사(0361)261-0436
신도법회 매월 3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거리캠페인 111,620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1,000,000원 △청년정토회 12,001,550원, 일일주점수익금 10,966,550원, 개인후원금 710,000원, 민속의 옷 판매대금 325,000원

〈1일 현재 총 83,981,489원〉
· 후원금 접수 : (02)3672-5373
· 국민은행 : 818-21-0179-960 예금주 : 최석호

교차로

'아인슈타인 평화상' 수상



경우 부산 대각사 조실은 지난 3일 미국 아인슈타인 학술재단이 제정한 '아인슈타인 평화상'을 수상했다.

교도소에 떡국 공양



현성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장(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지난 8일 설날을 맞아 안양교도소를 방문, 全 재소자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떡국공양을 했다.

美 동부 포교현황 조사



원혜 조계종 포교부장은 워싱톤 보스톤 등 미국 동부 지역 포교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일 31일 출국, 8일 귀국했다.

전방부대 위문품 전달



법륜 관음종총회의장(인천 흥륜사 주지)은 지난 1월 26일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임진각서 통일대법회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오는 14일 오전9시30분 한강 강나루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방생법회에 이어 임진각에서 통일대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해동용궁사 신년하례



정암 해동용궁사 주지는 지난 1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97 신년하례 및 용궁사의 밤' 행사를 가졌다.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홍상육학생등 1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지역노인 초청 경로잔치

상연 인천 용주사 주지는 오는 13일 문학동 노인정에서 지역노인 2백여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점심공양을 비롯하여 흥겨운 노래자랑도 펼쳐질 예정이다.

만등불사·촛불재 봉행



혜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만등불사와 촛불재를 봉행한다.

'세상을 보는 눈' 특강



박완일 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오는 16일 오후2시 전북예술회관에서 전북불교대가 주최하는 특별 강연회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주제로 강연한다.

(사)대불 이사 3명 영입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장(쌍용화재보험 사장)은 최근 대불련 총동문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불(大佛)의 새 이사로 황귀철 라인애드컴 사장, 박혁상 미우기획 사장, 최인섭 신호교역 사장 등 3명을 영입했다.

남원서 불교사상 강연



남지심 우리는 선우공동대표는 오는 17일 오후7시 남원 춘향회관에서 남원불교대학과 남원사암련 주최 불교사상강연회에서 강연한다.

민미협 9대회장 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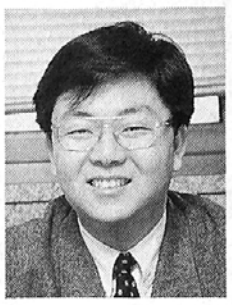


강행원 환경불교예술인연합회장은 지난 1일 민예총강당에서 열린 민족미술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강 회장은 민족미술협의회 사단법인화, 남북미술교류전·조국산하전 개최 등 한국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97년을 뛴다

열림정보통신 개발팀장 강승식 씨

전자지도 개발·사찰 인터넷 개설 추진



"정보화의 최일선에서 일하며 낙후된 불교계 실상에 무척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불교정보화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래머 강승식씨(30·봉은사 청년회 홍보부장)는 서울소재 종단과 사찰을 방문하며 (주)열림정보통신에서 개발한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맵'을 소개하는 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소프트맵'은 90만건에 달하는 서울의 지번(地番)데이터가 입력된 전자지도(1만분의 1 축적)를 컴퓨터상에 띄워 이용자가 원하는 대상의 위치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다. 강씨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구랍 29일 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新소프트웨어상품전에서 가장 우수한 OA상품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소프트맵'을 이용하면 사찰과 재적신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분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입체적인 통계 자료도 얻을 수 있다. 서울 소재 종단이나 사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교세와 더불어 포교 취약지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체계적인 포교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봉은사와 인연을 맺었다는 강씨는 오는 4월까지 봉은사 청년회의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띄우기 위한 작업에 여념이 없다.

오증욱 기자

"아들 유학빚 1억…셋방 나앉을판"

조계종 총무원 경비 20년 하재도씨



호소 20년동안 조계종 총무원청사 경비실을 지켜온 하재도씨(64)가 최근 유학중인 아들의 학비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92년 미국으로 유학간 아들(형선·28)의 등록금(한학기 8백만원)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하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간의 유학비는 근근히 충당해 왔다. 이러한 방법도 한순간, 이제는 대출빚만 1억원이 넘어 올봄에는 셋방살이로 나앉아야 할 형편이다. 그래도 하씨는 "자식교육은 부모의 의무"라며 1년정도 남은 아들의 학업 마무리를 위해 조석으로 부처님전에 기도를 올리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732-9341).

아들 형선군은 독실한 불자로 美국립 프랫대학의 사진영상학 석사과정에 있다. 〈근〉



월주스님 DJ와 정국현안 논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3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예방을 받고 정국현안에 대해 환담했다. 월주스님은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선과 관련 "어떤 정당·정파에 치우침없이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상규(새연등회장) 신낙균 안동선 박찬주 김진배 의원이 배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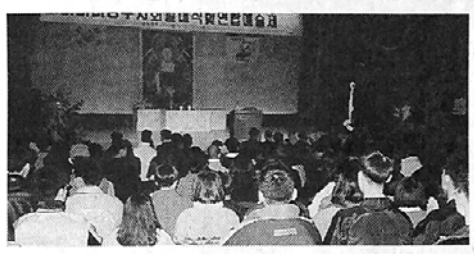
경북도청 불자회 창립법회

경북도청 공무원 3백여명으로 구성된 경북도청 불자회(경불회)가 지난 1월 31일 대구 진각빌딩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타(불교대구방송사장) 법등(직지사부주지)스님 최식의원(경북도의회 정각회) 경불회원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에는 지난해 9월 창립된 도의회, 정각회와 도청불자회가 병존하게 됐다.



송파구청 불자모임 반야회 창립

송파구청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모임 반야회(회장 유중원·건설관리과장)가 지난 1월 28일 청사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공식 출범했다. 6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된 반야회는 향후 송파구내 사찰과 불교복지시설, 각 신행단체를 연계해 교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월1회 정기법회 및 성지순례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파라미타 경주지회 발대식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는 지난 1월 30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경주지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성타(조계종 포교원장), 성천(불국사 부주지), 성형(경주지회장·불국사 포교국장), 백운(고불선원 주지)스님을 비롯 권영락(불국사 신도회장), 서기호(경주교사불자회장)씨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게시판

행사 민속놀이 대회=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은 정월 대보름 맞이 '주민 민속놀이(전래놀이)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2일 오후2시 복지관 운동장에서 윷놀이, 널뛰기, 지네걸음, 엿치기 등의 놀이를 갖는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051)363-2067

생일잔치=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오는 26일 회원들의 생일법회를 봉행한다. (02)720-4528

모집 원효학당 신입생=(사)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이 동장(銅章) 법사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마감은 28일이며, 개강은 3월 11일. (02)3411-6167

조계사 불교대학 신입생=조계사 불교대학은 3월 10일 개강하는 주간 야간 통신반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강의요일 매주 월~수요일. (02)720-6742

범음대학 신입생=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학장 대운스님)은 오는 25일까지 상주권공과, 각배과, 영산과, 범음과, 초급 상주권공 단기과정 등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합격자발표는 오는 28일 개별통지. (02)392-3007

심화불교대 신입생=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스님)은 오는 19일까지 유아교육과 중국어과 신문방송학과 불교미술과 불교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02)511-2026

후원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설날을 맞아 무의탁불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등 생활고를 겪는 이웃에게 '자비의 떡' 지원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02)852-0525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 불편한 노인의 수발이나 말벗 상대가 되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법사대 신입생=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묘봉스님)은 오는 28일까지 법사과정(1년) 오종대 법사과정(2년)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20-1836

봉사원=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매주 1~2회(토·공휴일 제외)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연꽃마을 노인무료경로식당에서 배식 설겆이 청소 등을 도와 줄 봉사원을 모집한다. (02)365-3677

법회 백고좌법회=법왕사(주지 실상)는 5월 21일까지 1백일동안 '제7회 법화산림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2)766-3747

강좌 불교교양대 개설=연동사 서울포교원(주지 원행)은 오는 3월부터 연동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한다. 개설과목은 불교입문 불교기초교리 자녀교육 한문강좌 등이며, 접수는 2월말까지. 강사는 한탑스님(담양 정토사회주) 혜명스님(음성사) 이훈(고려대교수) 이군섭(불광문화원장)씨 등. (02)383-6880

화촉 이성수 주간불교신문 기자는 오는 23일 낮 12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농협예식장에서 김경숙양을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02)734-0777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탕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과의 틈이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가정용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질 배군설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강퇴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日 2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요〉

〈2〉 미용효능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가 뽀얗게 됨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피부탄력유지 윤택뛰어난 피부 맛사지 효과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후두염등
〈1日10분~15분 얼굴피부찜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좌대〉
· 실용신안등록원 제96-23062호
· 의장등록출원 제96-16268호

● 규격 : 높이 27cm×직경 33cm
●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정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 강화약쑥 100일분 +황토가루 100일분 도합
●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첨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별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동의보감 탕액편권3」「본초강목」「향약집성방」「신해경」 등의 옛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황토가루와 약쑥을 염분(소금)과 함께 펄펄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쬐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 아픈곳을 좌대위 구멍에 대고 찜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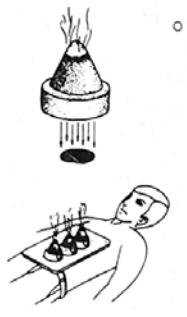


①〈허리요통,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 뭉침, 결리데, 당등의 질환〉 ③〈팔신경통, 이비, 시력증상, 침 술 놀이남, 근육통, 티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냉증, 간기능질환〉 ⑥〈손, 발바닥 무좀,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이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 : 553-0261~2 / 강북 : 902-2430 / 성북 : 942-6430 / 반포 : 597-7581 / 송파 : 417-8922 / 종로 : 747-7033 / 영등포 : 782-6080 / 구로·금천 : 864-0199
경기지역 : 평택 : (0333)856-6856 분당 : (0347)66-0049 / 용인 : (0335)36-4294 과천 : (02)503-9352
부산(051) : 부산진구 : 803-0108 연제구 : 864-2900 / 해운대구 : 702-2621
대구(053) 남구 : 474-2828 달서구 : 635-9734
대전(042) 중구 : 222-4936 서구 : 534-4211 / 동구 : 253-6446 둔산 : 487-7245
경남지역 마산 : (0551)23-9016 / 김해 : (0525)24-4871 / 진주 : (0591)43-4655
경북지역 울산 : (0522)74-7536 / 울산중구 : (0522)93-1973 / 울주구 : (0522)85-1284 / 포항 : (0562)82-3155~6 / 안동 : (0571)53-0229
광주(062) 동구 : 228-8544 / 서구 : 523-1540
강원도 강릉 : (0391)645-2117
충남지역 공주 : (0416)856-6856 / 예산 : (0458)33-3208 / 서산 : (0455)63-0457 / 아산 : (0418)43-3510
충북지역 청주 : (0431)273-2684 / 제천 : (0443)46-3023
제주도(064) 제주시 : 22-3324

"옛책 세월찾기 평생의 業"

산문밖의 禪

서지학자 **천혜봉** 박사



"먼지 쌓인 자료·문서
선조들 '삶의 역사' 담겨있으니
온고지신 사고로 탐구해야죠"

서지학 대가로 불리우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많다
한 일보다 할 일이 더 많기 때문

초조대장경 94종 144권 발굴고증 '20여년 노력'
'국내 서지문헌 편년순으로 묶자' 여생의 화두

베란다 창유리 앞으로 놓여 있는 책상, 그리고 쇼파 몇 개와 탁자를 제외하곤 사방이 온통 책과 각종 복사물, 자료들이 쌓여있는 15평 남짓의 서재 속에 묻혀 사는 이, 천혜봉박사(72, 서지학자·성균관대 명예교수). 옛책을 보는 안목에 있어 손꼽히는 서지학자요, '학문적 해탈'을 추구해 온 그의 첫마디는 뜻밖의 깊은 참회요, 아쉬움이었다.

"평생을 옛책을 찾아 세계 곳곳을 넘나들었어도 아직 명쾌히 밝혀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쯤이면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이 길을 절반도 채 오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천박사가 느끼는 부족감은 무엇인가. 학문의 길에서 일어나는 구도(求道)와도 같은 '열정', 그리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를 '배고픔', 이밖에 무엇으로 달리 설명할 수 있을까.

"고서(古書) 및 옛 유물은 그 가치를 아는 이에게는 호사가적 소장물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이며 한 사회의 역동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단, 살아 숨쉬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또 하나의 세계는 언제 태동했는지, 그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참으로 흥미로운 세계입니다."

오랜 세월의 퇴적으로 인한 상실. 옛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에게 이 '상실'은 그저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닌 탐구하고 규명해야 할 집요한 추적대상이다. 천박사는 온고지신이야말로 발전적 미래의 초석임을 강조한다.

천박사가 서지학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동국대 사학과 재학시절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부터다. 자연히 책을 접하는 기회가 잦아지면서 옛책을 보는 안목이 넓어졌다. 그러면서 우리 책에는 간인연대(刊印年代)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있다 하더라도 초간인(初刊印) 또는 구간인(舊刊印)을 그대로 되풀이 표시했을 뿐 간인된 실체와 맞지 않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지학은 책에 수록된 내용을 어법적으로 연구하는 원문서지(原文書誌), 본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해제(解題)하는 주제서지(主題書誌), 책 형태의 특징을 감별하여 고증함을 위주로 하는 형태서지(形態書誌)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천박사의 분야는 형태서지분야. 그러나 천박사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불교서지학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에만 전해질 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초조대장경〉을 처음으로 발굴, 고증해냈기 때문이다.

"1965년 일본에 가서 〈초조대장경〉을 보는 순간 '우리나라에도 없을리가 없을텐데…'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본부에 연구신청서를 내고, 없다고 포기하고 있던 우리 초조대장경을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바로 다음해인 1966년 중국 북해도로부터 구주(九州)에 이르기까지 조사작업을 벌인 끝에 7종의 사경을 발견했다. 20여년동안에 걸쳐 모두 94종 144권을 발견해내고 이를 토대로 고려전기의 목판인쇄술에서부터 불교사와 문화사 등 종래에 소홀히 다뤄졌거나 잘못 이해됐던 부분을 바로잡았다. 화두 하나 내려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발견에 못지 않은 서지학자로서의 그의 진가는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했던 한국 고서를 집대성한 〈한국전적인쇄사(韓國典籍印刷史)〉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또 우리나라 활자를 고증해낸 것 역시 뛰어난 학문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화두를 든 수행자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화두의 근원을 하나씩 하나씩 관하며 근원을 철저히 규명해 나간다. 천박사는 '학문'이라는 화두를 받아들고 구학(求學)하는 수행자로서 그 화두를 풀기위해 끊임없이 참구하고 또 참구해 온 셈이다.

서지학이라는 학문은 끊임없는 인내, 옛 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정성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나쁜 차이가 아닌 오직 누가 많이 보고, 읽고, 그 시간들을 견뎌냈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우리나라에 관한 자료를 거의 다 수집했음에도 천박사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다. 지금까지 이뤄온 많은 성과를 뒤로 하고 또다른 우리나라 초유의 작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관련한 국·내외의 모든 문헌을 편년순으로 묶어낼 생각입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이 마지막 내 여생의 숙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또다른 화두 하나를 든 셈이다. 학자는 어쩌면 자신이 축적해 놓은 학문적 결과보다는 학문을 향해 걸어가는 뜨거운 여정을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이미 수많은 화두속에 자신을 던지며 쉼없는 열정으로 삶을 채워 온 천박사. 그가 또다시 자신이 던진 화두를 풀기 위해 구학길에 오르기 시작한다.

한명우 기자

가족불화 풀 수 없나요

문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중시하는 줄 압니다. 가족이나 부부인연이라는게 매우 중요할 것인데 가족간에도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부부간에도 해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김인숙·서울 강남구 역삼동〉

답 불교가 무슨 다른 종교와 구별해서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저 풀 한포기도 불교입니다. 살아가는 도리도 불교입니다. 인연법이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것이니 불교에만 인연법이 있는게 아니지요.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수확할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부사이가 안좋아서 이제 그만 인연을 끊어야겠다 한다면 그게 무슨 법이 어떻다를 떠나서 다 내탓인 것입니다.

가령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하고 남을 탓하니까 서로 원망만 쌓이고 더욱 잘못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다 내 탓인데 말입니다.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된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그래서 누굴 탓하기보다 다 내 탓이니까 내가 먼저 생각을 돌리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으로 감싸안는다면 거기서 화목이 절로 싹트게 되겠지요.

그러면 당장 갈라지고싶다 했던 부부사이에 서로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게 되고 갈라지기는 커녕 오순도순 잘 살아갈 수도 있지요. 우리들은 서로 마음의 통신을 하게 되어 있도록 서로서로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따라 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무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믿음을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알고 있고 믿으면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알면서 믿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인공에 대해서는 알듯하다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모른다고 하는데도 계속 믿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동헌·강원 원주시 원동〉

답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내게 질문을 하면서도 모릅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고 오는 것, 먹는 것, 그런 것을 다 누가 합니까? 참나찰나에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게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전에 어느 스님이 솥을 걸어놓고 팥죽을 쑤는데 죽이 끓으니까 여기 저기서 뽈록뽈록 죽방울이 솟더란 말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죽 솥을 들여다보면서 주걱으로 방울방울 솟는 것을 내리치면서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요놈도 주인공 요놈도 주인공… 그래도 되겠지요. 방울방울 솟는게 다 팥죽이지 다른 것 아니지요? 그러니 뭘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참나찰나에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돌아가는 것, 그게 주인공 즉 말하자면 팥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나찰나에 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언제 따지고 말고 할 겨를이 있겠어요? 그냥 주인공! 하고 믿고 나가면 그뿐이지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생각도 죽방울이고 안다는 생각도 죽방울이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게 다 방울방울 죽방울, 팥죽이란 말입니다. 방울방울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르시겠어요?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전생, 후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참나찰나 나투는데 '나'라고 고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이지요. 내가 공이니 삼세도 공! 입니다. 그러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지요. 그래서 이치로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고 들어가라, 그러다보면 알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려거든 내가 누구인지부터 따져보시고 궁금하거든 '주인공, 너만이 너를 증명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믿고 들어가보세요.

이게 이치로 따져서 알 것 같으면 왜 스님네들이 20년 30년씩 이 공부에 매달리겠습니까?

올해 삼재인데 피할방법은

문 올해 신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재가 들었다며 여러가지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불자로서 이를 어떻게 소화해야 바른 길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조양순·서울 서초구 서초2동〉

답 예로부터 삼재팔난이 어떻다느니 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달은 어떻고 어느 해는 어떻고… 갑자을축 따져서 사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사가는 일에 무슨 달은 좋고 무슨 날은 피해야 한다. 손이 있느니 발이니 하는데 도대체 그게 다 뭡니까?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쪽 서쪽 몽땅 놓아버리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당당한 권리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입니다.

주인인 우리가 무슨 방위가 어쩌고 날이 어쩌고 하는데 끄달려서야 되겠습니까?

불자라면 부처님께서 뭐라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금강경, 화엄경에… 아니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놓아버리세요 께름직하면 한 생각 돌려서 털어버리세요. 팔자 운명도 한 생각 돌리는데 달려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양성교육기관

신입생 모집

■제7기 포교사 과정 ■제9기 교리반 ■제1기 수화반

구분	제7기 포교사 과정	제9기 교리반	제1기 수화반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남·여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수화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교육기간	1년(1997년3월 ~1998년2월)	6개월(1997년3월~8월)	6개월(1997년 3~8월)
교육일시	매주목·금요일 오후 7시~9시	매주금요일 오후2시~4시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원서접수	1997년 1월10일~2월28일(선착순 마감)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2매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서류 전형	
원서접수비	3,000원		
등록금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40,000원	입학금 3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20,000원	입학금 2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10,000원
특전	본대학 학칙에 따라 수료생에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로 품수함	수료자는 포교사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종단과 협의하여 특수포교사로 품수될 수 있도록 추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사무국(T.051-818-8659, F.807-7351)으로 문의바랍니다

제7기 포교사 과정 (강의순)

과목	강사	과목	강사	과목	강사	과목	강사
불타론	이하우학장	반야사상	법륜스님	불교사상사	류동호법사	선사상	선과법사
근본불교사상	이욱태법사	법화사상	심산스님	정토사상	우진스님	불교미술	김용환박사
인도불교사	정인 스님	화엄사상	각성스님	한국불교사	이하우학장	불교사회복지	고우익법사
중국불교사	곽만연교수	비교종교학	최봉수박사	포교론	현익채법사	불교의식	군구암스님

※ 야외법회및 수련, 수계식 등은 별도 학사일정에 의거 실시하고,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정관스님(영주암 회주), 벽파스님(금강암 회주)등의 특강을 실시함.

제9기 교리반 과정 불교학 개론, 불교문화사, 경전 개설, 불교미술, 참선실수, 습의 및 특강을 거설하여 교계의 대덕스님, 교수, 법사, 본 대학 강사가 쉽고 체계적으로 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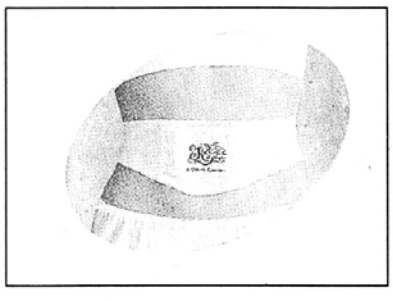
제1기 수화반 과정 수화기초는 동서대학 수화강사인 강주수 선생님이 쉽고 체계적으로 강의하며, 불교교리를 본 대학강사가 월 1회 강의함.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8/2) 성원서면주차빌딩 2층 화엄회관(부산진구청뒤)
☎(051)818-8659, FAX807-7351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오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오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 간** : 96. 11. 1 ~ 97. 2. 20

■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동 참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法數로 배우는 불교 ⑤

일불승 (下)



◇김양수作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남방불교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와 같은 개인적 수행을 강조한 반면 대승불교는 육바라밀 십바라밀과 같은 이타적 수행을 강조하며, 중생구제 없는 수행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또 부처님에 대해서도 남방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과거7불 그리고 미래불인 미륵불만을 인정하는데 반해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주에 두루하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는데 얼마든지 많은 부처가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출가도 남방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은 출가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출가의 공덕에 입각한 수행을 으뜸으로 친 반면 대승에서는 석가모니의 수행은 이 세상에 오시기전부터 수많은 보살행을 통해 해온 것이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참다운 수행은 출가, 비출가 이전에 보살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같이 남방불교와 대승불교는 과거부터 불교의 제반사상에 대하여 서로간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면서 적지않은 마찰을 가져왔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지닌 측은 대승쪽이었다. 대승의 많은 경전에서는 전통적이고 개인위주의 수행을 강조하는 상좌부 계통의 수행자들을 소승의도라고까지 칭할 정도였다. 대승경전에 의하면 대승을 따르고 실천하는 수행자들을 가리켜 보살승이라 하고 소승을 따르고 실천하는 수행자들은 연각승 성문승이라 한다. 이것을 삼승(三乘)이라 하는데 이는 순전히 대승쪽의 분류일뿐 남방불교의 방식은 아니다.

성문·연각·보살은 방편

법화경 '회삼귀일 사상' 일불제자 가르쳐

남방불교의 입장에서는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모습일뿐 실제는 스승의 설법을 듣고 법을 깨치는 성문승과 인연법을 스스로 관찰하여 법을 깨치는 연각승만이 있다. 대승불교의 역사속에는 이렇게 인정을 하건 안하건 대승으로서의 보살승과 소승으로서의 성문승, 연각승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대승의 모든 경전이 다 그랬을까? 그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전이 성문과 연각 같은 개인구제를 중심으로 한 성자들을 꾸짖고 비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교의 최고경전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법화경에서는 이 세가지의 수레를 하나로 귀일시키고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회삼귀일(回三歸一), 즉 셋을 하나로 복귀시킨다는 사상인데 그 하나란 일승(一乘: Eka-yana)을 말한다. 일승은 대승과 소승을 통합시키는 또다른 차원의 크나큰 수레로 기존의 대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법화경〉 방편품에 의하면 부처님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 셋에 대해 궁극이 아닌 방편이고 실제로는 일불승뿐이라고 하면서 소승과 대승을 하나의 크나큰 부처의 수레(一佛乘)에 오르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셨다.

쉽게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가 혼자 타고가는 소승을 오토바이에 비유하고 여럿이 함께 타고가는 대승을 버스에 비유한다면 일승은 오토바이와 버스를 다함께 이 기슭에서 저 기슭으로 태워다 옮겨주는 큰 배와 같다는 것이다. 이는 소승과 대승의 분열을 막고 하나의 커다란 부처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가르침인 것은 틀림없다 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큰 뜻을 지닌 부처님의 일불승사상도 남방불교의 수행자들에게는 하나의 '당신네들이 만든 부처님의 말씀'일 뿐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 대승불교가 안고있는 국가간의 큰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화경의 일불승적 사상은 아직도 교리적으로나 수행적으로 대·소승 불교국가간의 단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젠 불교도 과거시대와는 다른 불교국가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성문승과 연각승을 추구하는 남방불교와 보살승을 추구하는 대승불교가 하나의 커다란 부처의 수레 속에서 함께 굴러갔으면 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나의 수행일기

송 위 지 〈外大 인문과학硏 선임연구원〉



맹구우목(盲龜遇木)! 불법만나기 힘듦을 일컫는 말이다. 도처에 절이 있고 법회가 있어 불법을 만나는 것이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각자의 필요에 맞는 법회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신앙적 방황을 심하게 겪었던 내가 서양종교를 버리고 불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으나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정도를 조금 넘은 것일뿐 실제로 정법을 만난 것은 서울불교청년회에 나가던 어느해 속리산 법주사에서였다.

장소만 기억나고 법사 스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새벽 예불을 마친 내가 졸면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부모미생전 본래진면목'이라는 그 유명한 화두를 설하시는 대목에서 내 귀가 번쩍 뜨였다. 아니 아버지의 몸에 들기전의 나의 모습이라니?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을 가득채운 이 화두는 창조와 진화의 상대적 개념속에 방황하던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끝내 나로 하여금 생활 자체를 불법 홍포라는 일과 연결시켜 저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인지 그전에 그렇게 병원을 좋아하시던 어머니께서 내가 스리랑카에 있는 동안 한번도 병원에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굳은 의지와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이 있기도 했지만, 분명 부처님 가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늘 불은(佛恩)에 감사하며 살고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도리와 인과의 법칙이다. 무상의 도리속에서 항상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에게 서운한 일을 당하거나 또 누구와 경쟁할 일이 생기면 먼저 비켜간다.

인과의 법칙을 알면서 내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으니 군더더기를 필요로 하

"무상의 도리·인과법 내삶의 좌표"

지계·보시 가정서부터…가족·친지 장기기증



주었으니 그때 법주사에서의 경험은 바로 맹구우목 그 자체였던 것이 이후 나는 방관자적 자세에서 하던 청년회 활동을 바로 내 자신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전념했다. 공군본부 군종감실에서 불교종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짓궂은 목사들의 구두닦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불교연합회를 만들어 직원들은 물론 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환들을 중심으로 법회를 시작하였고, 또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 법회를 시작하였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대학을 늦게 다닌 내가 스리랑카행 비행기를 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내 몸과 마음속에 흐르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스리랑카를 가기직전 출생한 첫째아이에게 나는 '자비로운 부처님이 우리집에 오셨네'라는 뜻으로 '자현'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후 태어난 둘째에게도 '우리집에 부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의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면서도 너무 고마운 일은 멀리 떨어지 않는 명쾌한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침마다 모시는 예불에서도 또 각종 법회에서도 언제나 나는 무상과 인과를 생각하고 이웃과 집안 식구들에게도 항상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나는 또 다른 서원을 세웠다.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서울과 용인 양쪽 캠퍼스의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아 매주 법회는 물론 조용하게 캠퍼스 청정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서원은 나도 스님과 똑같이 정진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작게라도 지계와 보시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동안거때 나는 물론 우리 식구와 몇몇 친지들의 장기기증을 성사시켰다. 사실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으나 몇해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우리집의 아침은 예불로 시작된다. 매일 올리는 발원문은 그날그날의 사안에 따라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가슴 뭉클하게 하는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발원문은 진정 앞으로 우리집의 희망인 것 같다.

"석굴암 목조전실 있었다"

문화재硏 김봉건실장 KBS '원형탐구…'에 반론

"샘물 통한 습도조절 확인 안돼"



◇김봉건씨

지난달 5일 KBS 1TV가 방영한 '일요스페셜-원형탐구 석굴암'의 내용에 대한 몇가지 반론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김봉건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은 KBS의 "석굴암은 현재처럼 나무로 된 전실(前室·목조전실)이 없었다. 외벽은 흙과 돌을 섞어 축조한 구조였으며, 석굴내부 바닥에 차가운 샘물이 흐르게 하여 자연스럽게 습도를 조절했다.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광창(光窓)이 있었다"는 방영내용은 석굴암의 원형에 대한 여러 가설 중 현재의 보존방식과 대치되는 설만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조전실문제와 관련해 김실장은 목조전실이 없었다면 석굴암 입구의 팔부신장상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보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벽 구조와 관련해서는 만약 외벽이 돌과 흙으로 축조해서 공기를 통하게 했다면, 비나 눈이 왔을 때 빗물이 굴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석굴 바닥의 샘물을 통한 습도조절에 대해 김실장은 보수공사 때 이러한 효과를 고려한 바닥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닥 밑으로 찬 샘물을 흐르게 해 그 온도차이로 벽과 천장의 이슬맺힘을 막았다면 바닥의 돌이 질서정연하게 시공됐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광창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김실장도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만약 광창이 있었다면 광창과 외벽의 이음처리를 어떻게 해 누수를 막았으며, 외부로 노출된 광창 앞부분에서 발생할 누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우〉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상좌부불교



인도에서 개설한 사이트 '상좌부불교'(Theravada)에서는 하이테크(high tech.)로 구현된 불교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불자 네티즌이 한번쯤 방문해 정신과 기술 문명의 총아를 마음껏 살펴볼 수 있다.

'상좌부불교'에서는 부처님생애·상좌부의 대장경 등의 굵직한 정보 이외에도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시론·불서(佛書)·불교뉴스·전자도서관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과 전산본을 각각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성제, 팔정도, 윤회, 열반 등의 불교용어를 풀이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담마난다스님의 〈불교의 신념〉(Buddhist Missionary Society 刊)에서 일부를 인용해 동시대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질문되는 결혼·여성·세계 기원·원죄 등에 대해 불교적 혜안(慧眼)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불교사·불교사회학·불교철학·윤회·명상·여성·자비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논문, 에세이, 서적 등을 알파벳 순서로 제공하고 있다.

주소는 'http://www.inet.co.th/Cyberclub/bow'

〈욱〉

30여 경전·논문·에세이등 소개

탄생·고행·성도·전법 등으로 구분해 제공된 '부처님생애'에는 나라다스님의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Cultural Conservation Trust 刊)에서 일부를 발췌해 제공해주고 있다. 이중에서 탄생과 성도에는 동화적인 삽화도 함께 보여준다.

'대장경'에서는 한국불교에서 낯설지만 아난다존자가 경·율·론 삼장을 결집해 만는 경전(Anattalakkhana)을 상좌부불교 대표 경전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30여종의 경전에 대해 주석

1997년도 도시생활 포교사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3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7년 3월 8일 (토) 3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상반기)	한글불교의식 Ⅱ(하반기)
●아침·저녁으로 해오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 …… 장엄염불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 …… 일반의식 ●장례의식(2) …… 임종·매장·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포교사 취득자 ·포교당 운영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장	97년 2월 1일(토) ~ 3월 7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3:00~4:30(동산법당) (본연구원 법당)

5. 입학금 ●일십만원

6. 원서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732-1206~8/FAX : 732-1207)

7.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3년과정)

97학년도 동산불교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 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도를 중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저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2. 교과목 및 교수

경전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매주월요일)	1학기	화엄경입법계품	1학기	금강경	1학기	화엄경 Ⅰ	·무진장 스님(연구원원장) ·박종 교수(한국안성개발연구원장)
	2학기	아함경 Ⅰ	2학기	중 론	2학기	불교미술	·증범 스님(승가대 교수) ·정석 스님(승가대교수) ·오형근 교수(동국대 교수)
응용과정	1학기	비교종교·불교	1학기	법화경 Ⅰ	1학기	화엄경 Ⅰ	·권기종 교수(동국대 교수) ·정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장휘옥 교수(전동국대 교수)
(매주화요일)	2학기	아함경 Ⅰ	2학기	법화경 Ⅰ	2학기	포교방법론	·권탄준 교수(동국대 교수) ·정병조 교수(동국대 교수) ·정태혁 교수(동국대 교수)
							·한정섭 박사(상락함원장) ·서윤길 교수(동국대 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개강일시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포교사 취득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명함판사진 3장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7년 2월 1일 ~ 3월 1일(토) (서류전형)	97년 3월 3일	매주 월·화요일 오후7시~9시 (본연구원 법당)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자만 지원가능

4. 개강일시 1997년 3월3일(월), 4일(화) 오후 7시

5. 입학금 일십만원

6. 졸업자격 경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 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7.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문의전화 : (02)732-1206~8, 722-0408/Fax:732-1207)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㉛

逐漸過了寂靜 粗妄既息 得到輕安
축점과료적정 조망기식 득도경안
就有了種種境界出現
취유료종종경계출현
有的不知身子坐在何處了
유적부지신자좌재하처료
有的覺得身子輕飄飄的上昇了
유적각득신자경표표적상등료
有的見到可愛的人物而生歡喜心的
유적견도가애적인물이생환희심적

차츰 적정에 이르러 거친 망상을 쉬고 경안에 되는데
갖가지 경계가 나타나게 된다.
어떤 경우엔 제 몸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모르게 되고
어떤 경우엔 몸뚱이가 표표히 날아오르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엔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나타나 환희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有的見到可怕的境界而生恐怖心的
유적견도가파적경계이생공포심적
有的起怪異心的 種種不一
유적기음육심적 종종불일
要知這都是魔 着卽成病
요지저도시마 착즉성병
四者 有的業障軟動的 理路明白

맑고 상쾌하여 망상이 쉰것같고 신심도 자재하여 경계따위가 없다.
이 경지에 이르면 올바로 떨치고 일어나 앞을 향해 공부해 나가야 한다.
오히려 고목이나 바위같은 그 앞에 다시 또 많은 길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이는 여기에서 혼침에 빠져 머물게 된다.
또 어떤 이는 약간의 해오를 얻어 시문을 지으며 만족해 함으로써 아만을 드높인다.

以上四種境界都是病 我今予爾們以對
이상사종경계도시병 아금여이문이대
治之藥
치지약
第一 如瓶頭未看上 妄想昏沈多的人
제일 여화두미간상 망상혼침다적인
就還是看 念佛是誰這箇誰字
이환시간 염불시수저개수자
待看到妄想昏沈少 誰字不能忘了時
대간도망상혼침소 수자불능망료시
就看這一念起處
취간저일념기처

이상의 네 경계가 다 병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이에 대치하는 약을 주노라.
첫째, 화두가 아직 들리지 않고 망상

"화두 들리지않고 망상혼침 많은 사람
'염불하는자 누구인가' 보는 공부하라"

사자 유적업장교경적 이로명백
用功恰當 已走上了正軌的
용공흡당 이주상료정궤적

또 어떤 경우에는 두려운 경계가 나타나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하며
어떤 경우엔 음욕이 일어나는 등 갖가지가 있으니 이 모두는 다 마군인지라 집착하면 곧 병인줄 알아야 한다.
넷째, 어떤 이는 업장이 비교적 가벼워 이로가 명백하고
공부가 제대로 들어맞아 바른 궤도에 들어서기도 한다.

淸淸爽爽 妄想若歇 身心自在 沒有甚
청청상상 망상약헐 신심자재 몰유심
麼境界
마경계
到此地步 正好振起精神 用功向前
도차지보 정호진기정신 용공향전
惟須注意 枯木巖前叉路多
유수주의 고목암전우로다
有的是在此昏沈而停住了
유적시재차혼침이정주료
有的是得了點慧解 作詩作文 自以爲足
유적시득료점혜해 작시작문 자이위족
起貢高我慢
기공고아만

과 혼침이 많은 사람은
다시 염불시수의 '수'자를 보라.
그렇게하여 망상과 혼침이 적어지도록 보아 '누구인가'가 잊혀지지 아니할 때에 저 한생각 일어나는 자리를 보게 되리라.

待一念不起時 卽是無生
대일념불기시 즉시무생
能看到一念無生 是明眞看話頭
능간도일념무생 시명진간화두
第二 關于執着 念佛是誰在話尾上用心
제이 관우집착 염불시수재화미상용심
以生滅法爲是的人 也可照上述的意思
이생멸법위시적인 야가조상술적의사
卽向念起處看到一念無去
즉향념기처간도일념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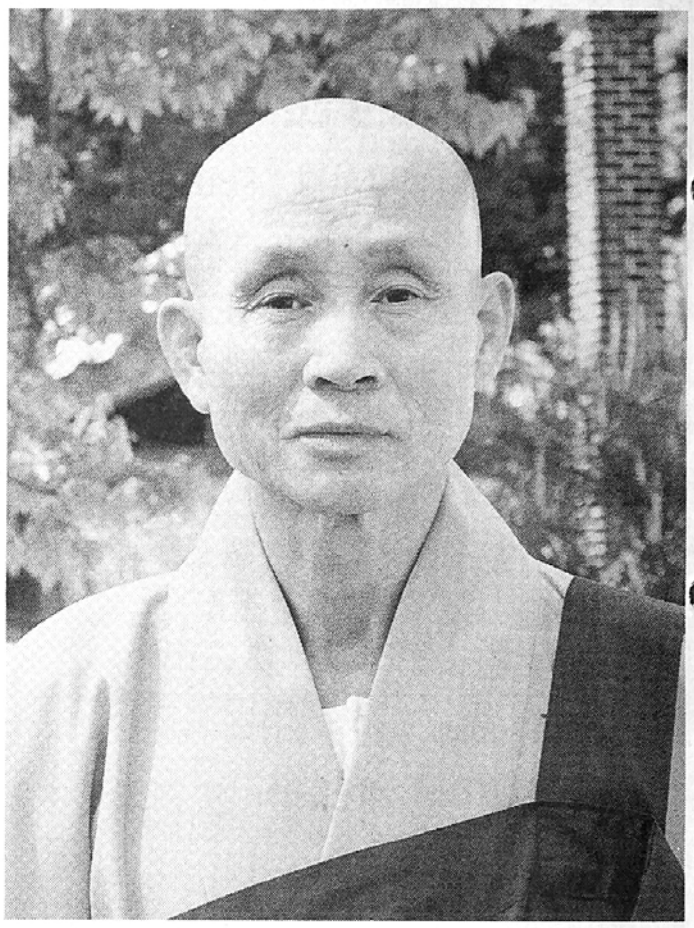
한생각 일어나지 않을때가 곧 무생이니 능히 일념무생을 보게되매 이를 이름하여 참으로 화두를 본다고 한다.
둘째,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에 집착하여 회미에다 공부를 짓고 생멸법으로써 공부하는 이에 관한 것이니 위에서 말한 뜻으로 비출 수 있다면
곧 한생각 일어나는 곳을 향해 한 생각 오고 감이 없음에 이르리라.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일이 바로 삶이고

대정스님 〈범어사 선원장〉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대로 평등한데
그것을 바로 깨우치지 못하고 미혹 빠지니
너와 나,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요"

16세에 출가하여 전국의 이곳 저곳을 운수행각하기를 어느덧 50년입니다.
대구서 태어나 경북중학교를 다니던 시절까지 일제치하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말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도 뺏겨 일본식이었습니다. 학교는 일본군 훈련장이 되고 학생들은 비행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모든 것이 일본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학도호국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에 징집되었고 요즈음 얘기되고 있는 정신대도 내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일입니다.
그러다 15세가 되던해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일제치하의 어려운 시기가 끝나는가 싶더니 '좌익이네 우익이네'하며 세력다툼을 벌여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더구나 보릿고개다 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좌익이 득세하면서 지식인들과 지주들에 대한 처단이 있었고 나도 곤란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친이 14세때 돌아가셨는데 3대독자인 나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셨으니 어린나이 대지주 인셈이라 피신을 안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불교에 관심이 많던 할머니의 오라버니 소개로 지리산 쌍계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3일이 걸려 그곳에 갔을 때 산세가 좋고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산내 국사암에는 만공스님의 법제자인 고봉스님이 주석해 계셨는데 특별히 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차마 어려운 처지에서 쫓겨온 사실을 말하지는 못하고 질문을 드렸지요.
"스님 좋은 일이 없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절박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도(道)를 닦으라며 "도를 깨치면 안되는 일이 없다. 세상에서 알수 없는 것을 알고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심정에 뭔가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요.
진정한 법(法)이라는 것은 말과 뜻과 생각으로는 알수 없는 것인데 생각으로 헤아리려 하니 그럴 수밖에요.
법을 뜻으로 헤아리고 뜻으로 알려하면 이것은 계산한 것일뿐 결코 법이 아닙니다. 또한 도(道)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말로서는 미칠수도 없고 표현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禪)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내거나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생각은 될지언정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생각을 넘어선 근본성품, 마음자리를 바로 깨치는 것이 우리들이 일구월심 구하려는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란 실상 우리모두 몸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불성(佛性)이지요. 이것을 여의면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마음이란 현재 우리가 앉고 눕고 가고 오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즉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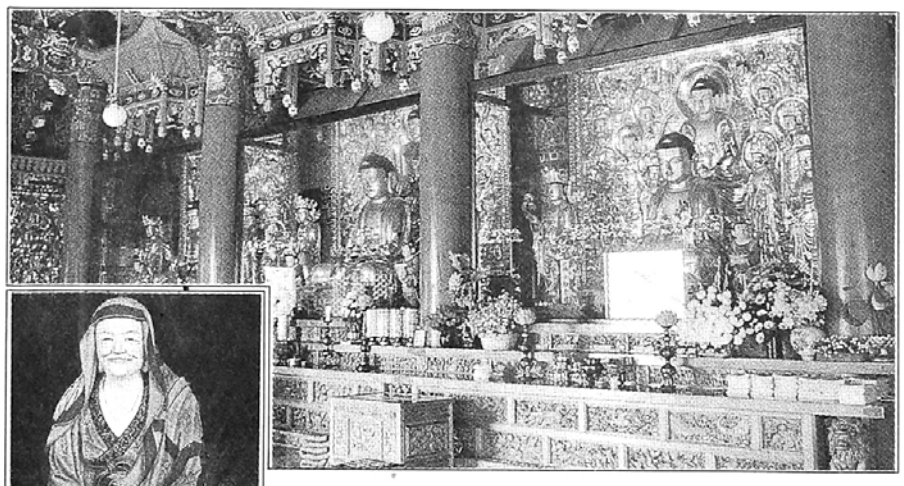
약력
- 1931년 대구 生
- 1946년 출가
- 1959년 통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수지
- 해인사 범어사 등 선원과 지리산 모악산 등서 토굴수행 정진
- 1989년이후 현재 범어사 휴휴정사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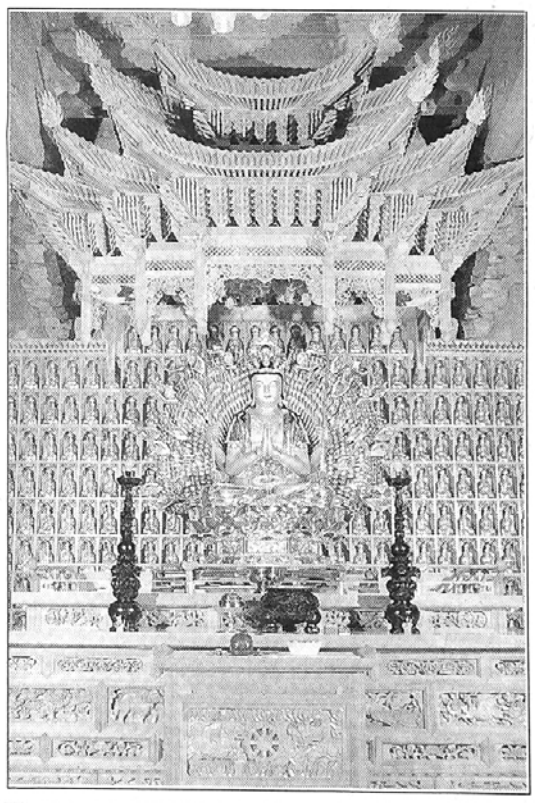
"불법을 뜻으로 헤아리고 알려고하면
생각은 될지언정 道에 못이릅니다
생각 여의고 마음자리 알때
우리 모두 부처님 될 수 있어요"

가 바로 마음이요, 도라는 것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자신의 본래 성품을 살펴 바로 확립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바로 도이며 법이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평등한데 그것을 바로 깨치지 못해 미혹에 빠지고 이로 인해 모든 갈등이 일어나게됩니다. 즉 너와 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등 실상 우리의 근본과는 아무 상관없는 현상들이지요.
부처님이 설하신 장대한 팔만사천법문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보지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경전을 꾸준히 읽어 궁극에는 각자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불행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불행하고도 슬프고 기막힌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진정 '참된 인간'이 되는 길 즉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시간부터라도 자신의 근본마음을 바로 알아 나가는 수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6세까지 1년여를 지리산에서 화전민들과 생활했습니다. 스님들이 염불하시는 것을 귀동냥해 혼자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관음정근을 한 것이지요. 어느날 이를 지켜보시던 고봉스님께서 본격적으로 출가를 권하셨습니다.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의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대환영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인한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절에 불공드려 나를 낳으셨습니다. 내 아래로 다섯동생을 두셨지만 어려서 모두 잃었습니다. 게다가 부친과도 일찍 사별하셨으니 인생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계셨던 참이라 그야말로 모자간에 뜻이 통했지요. 어머니는 "속가의 재산이나 그밖의 일을 내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큰스님 수행한담

생활속의 수행이죠

"토굴서 살다보니 풀·돌 하나도 소중 나와 자연 경계 없어지니 조화 당연 어찌 서로 미워하고 해 끼치겠는가"



◇ 1959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후 기념촬영했다. (원안 대정스님 · 앞줄 중앙 동산스님)

부처님법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으뜸 불자

"출세간 막론하고 인욕수행 수칙삼아야"

가 다 정리할테니 너는 철두철미하게 도를 닦아 큰뜻을 이루도록 하라"고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전북 금산사로 출가해서 지리산일대 사찰에서 수행하다 19세에 봉서사에서 마곡스님을 시봉하시던 보안스님께 사미계를 받았지요.

6·25 전쟁이 한창일때 스님께서 "부산 범어사 동산스님께 가서 공부해라" 하셨습니다. 그곳은 전망이 좋아 멀리 바다도 보이고 산아래가 환히 굽어보이는 곳인데 주변의 나무로 대충 얼기설기 지어서 토굴생활을 시작했지요. 음력 10월 말경에 들어갔어요. 눈이 오기 시작하면 사나흘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사람 허리까지 차오르고 가만두면 토막이 파묻힐 지경이었습니다. 산이 깊고 한겨울이라 다른 동물들은 거의 보이질 않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매일 토막주변을 어슬렁거리다 사라지곤 했는데 두려움은 없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무사히 잘 수행정진하도록 보초를 선것같아요.

생식을 하면서 차오르는 눈을 치우는 일 외에는 두문불출하고 화두를 잡았지요. "내가 뭐꼬?" 처음부터 화두가 잘되는 것은 아니어서 관세음보살 주력으로 사흘을 보내고 나니 음이 소멸되며 저절로 화두가 잡히게 되더군요. 놀라운 일은 화두의 절정에 가면 잠이 깊이 들어도 화두가 역력한 경지가 오는 것입니다. 분명 잠을 자는데도 화두가 선명하게 잡혀있다 그말입니다.

그때는 정신이 맑은 거울같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화색이 돌고 몸이 축나거나 하지도 않아 스스로 생각해도 참 신기하더군요. 아무튼 몸이나 생각이 간데없고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화두에 전념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화두삼매에 빠져 시간이 어느정도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산에 나무꾼이 없는 걸로 봐서 설이구나 짐작할 정도였지요.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산밑에서 수행중이던 스님이 틀림없이 내가 죽었을거라 생각하고 험한 산길을 올라와서는 날보고 깜짝 놀래는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가 살아있는데다 화색이 도는 것을 보고 환골탈태했다고 하면서 반가워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산아래에 금강산 마하연토굴에서 37년 정진하신 스님이 계시니 같이 친견하자고 하더군요. 그길로 산을 내려와 그 스님께 갔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은 수행자들에게는 복입니다. 나름대로는 공부를 점검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스님은 "빈도(貧道)인 자신으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으나 지금의 수행정진하는 마음이 변치않고 정진한다면 대도를 이룰것이다"며 격려해 주시더군요.

그 이후로 이곳 저곳을 운수행각을 하다 29세되던 해에 범어사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동산스님께서 하신 첫 일성이 "네가 중이 되었으니 철두철미하게 계를 잘 지켜라"며 "도(道)라는 것은 처음 먹은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니 초발심을 항상 기억하고 수행정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동산스님을 직접 시봉해야 도리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스승삼아 전국의 선방을 다 돌았습니다. 주로 지리산에 토굴을 지어 살았습니다. 깨쳐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토굴을 마련하기 위해 산입구에 들어서면 향긋한 산내음이 났는데 지금은 오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요즘은 산에 마음대로 집조차 짓지 못하지만 그때야 임시로 토굴하나 지어 사는데는 별 지장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토굴생활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생활입니다.

지금은 공해가 심하고 물도 많이 오염되어 그만한 맛이 안납겁니다. 모든 먹거리를 직접 키워먹다보니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저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더라구요. 옛 조사스님 말씀대로 깨친 경지에서 보면 나와 자연의 경계도 없으니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같은 근본을 가졌는데 어찌 서로 미워하고 해를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자신의 성품을 확철하게 알려는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믿음 그자체를 강조하는 소극적인 신행자세여서는 부족합니다. 믿는 그대로 생활해야 하지요. 그래야 부처님의 참된 법이 살아서 커다란 생명의 참맛을 볼 수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 부처님 말씀의 요체를 알고 이것을 이웃과 친지에게 전해야 하지요. 말 그대로 생활불교인이 되어야합니다.

불도는 수행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래서 스님을 성직자라고하기보다는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입고 있는 가사와 장삼은 바로 부처님의 고행과 인내를 닮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 것입니다. 바로 인욕의 상징이 가사인것이지요. 부처님은 모진 고행과 인내를 통해 법을 깨치셨고 그로인해 만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출세간을 막론하고 부처님 제자는 인욕을 수행의 큰 수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대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 토굴생활은 59세까지 지리산에서 했습니다. 대중들이 다 말리고 하는데도 생식으로 1일 1식하면서 지냈습니다. 인욕과 고행을 실천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곳 범어사서 살고있지만 시봉을 두지 않고있습니다. 토굴생활의 습이기도 하지만 내 심부름 내가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백장스님이 "1일 부작이면 1일 불식하라"는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 그자체가 바로 삶의 수단이자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행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재가자들도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풍족한 물질로 눈부시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 안하고 사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왜 사는지 그 주처를 잃고 사는것이지요. 일에 몰두함으로써 생활속의 수행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108

박 순 달

4大와 原子 (5)

불교물질관

불교는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는 동안 난해한 이론에 빠져들면서 점차 대중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이때 불교의 진정한 정신을 되찾아 대중들에게 친밀한 불교를 일으켜 세우려는 대승불교 운동이 나타났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스투파)을 지키는 재가의 집단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만인구제를 지향하는 대승물(大乘物)의 뜻에서 대승이라 하였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이타(自利利他)적인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추구하는데 이에 비하여 각자의 열반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부파를 소승이라고 부른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가 이 부류에 속한다. 기원전 1세기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대승경전이 나타나 기원후 6세기부터 부흥하기 시작해 중국을 거쳐 극동지역에서 꽃을 피웠다.

부파불교 중에서 설일체유부학파는 경전이 남아 있어 잘 알려져 있다. 이 체가 아니라 가유(假有)이다. 이 가유는 인연이 흩어질 때까지는 존재하는 것이니 없는 것도 아니니 비공이다. 그래서 유(有)와 공(空)에 대해 치우치지 않는 유공(有空)의 중도를 표방하게 된다. 용수는 대지도론에서 무유색(無有色)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 사물을 관찰할 때는 유의 입장에서도 보고 무유의 입장에서도 보아야 한다는 중도적 관찰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중도론이다. 이런 공사상을 이어받은 대승에서는 물질을 유로 보기도 하고 공으로 보기도 한다. 〈금강경〉에 말하기를 "무릇 모습이 있는 형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습에 대하여 모습이 없는 면까지 본다면 곧 여래를 볼 것이다"라고 이르고 〈반야심경〉에서도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라고 말한다.

"일체는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대승불교 非有 강조 물질관 발전없어

유부이론을 습득한 세친은 4세기 〈구사론(俱舍論)〉을 저술했다. 이것을 이어받은 것이 구사종이다. 〈구사론〉은 법을 5위75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5위란 법을 5개 범주로 나눈 것으로 색(色)법, 심(心)법, 심소(心所)법,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법, 무위(無爲)법을 뜻한다. 색법은 일체의 물질적 존재로써 11종으로 분류하는데 5근, 5경, 무표색의 11종이다. 5근은 인간의 인식기관으로 6근중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을 뜻한다. 5경은 6경중 안경, 이경, 비경, 설경, 신경을 말한다. 이것은 모두 형상이 있는 것으로 이외에 형상이 없고 의식(意識)이 인식하는 무형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무표색으로 분류한다. 한편 설일체유(說一切有)에 반해 무아, 무상의 근본교설을 중시하고 설일체공(說一切空)을 주장하는 성실종은 5위84법에서 색법은 5근, 5경, 지수화풍 4대를 포함하여 14종으로 보고 있다. 구사종이 물질을 11종으로 분류하면서 4대를 기본으로 삼는데 비해 성실종은 4대 또한 물질의 분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2세기경 용수(龍樹)는 공사상을 제창하여 대승사상의 기초를 마련한다. 공은 없다거나 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도로서의 공을 의미한다. 모든 존재는 실체가 아니라 가유(假有)이다. 이 가유는 인연이 흩어질 때까지는 존재하는 것이니 없는 것도 아니니 비공이다. 그래서 유(有)와 공(空)에 대해 치우치지 않는 유공(有空)의 중도를 표방하게 된다. 용수는 대지도론에서 무유색(無有色)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 사물을 관찰할 때는 유의 입장에서도 보고 무유의 입장에서도 보아야 한다는 중도적 관찰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중도론이다. 이런 공사상을 이어받은 대승에서는 물질을 유로 보기도 하고 공으로 보기도 한다. 〈금강경〉에 말하기를 "무릇 모습이 있는 형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습에 대하여 모습이 없는 면까지 본다면 곧 여래를 볼 것이다"라고 이르고 〈반야심경〉에서도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라고 말한다.

대승학파의 유가행파는 아상가, 바스반두에 의해 유식론(唯識論)을 발전시킨다. 유식론에서는 여섯 개의 식(안, 이, 비, 설, 신, 의) 이외에 제7식, 제8식이 있고 제8식을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고 하는데 마음과 육체의 근본이고 뿌리가 되는 마음으로 모든 업을 보관하고 있어 장식이라고도 한다. 유식론에서는 일체는 불이식(不離識)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체는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마명은 〈기신론〉에서 색심불이(色心不二)사상을 천명한다. 법장은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물질은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의 몸을 말하며 마음은 법신불(法身佛)의 진심을 말한다. 이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을 색심불이라 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소승불교는 부파불교 때 발전한 이론을 이어 받아 오면서 물질관에서는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위에서 본대로 11종, 14종분류가 있기는 하나 원시불교, 부파불교의 물질관을 정리한 것이다.

대승불교는 근본사상이 색의 비유(非有)적인 면을 강조하고 색을 공으로 보아 색의 유위(有爲)적인 면을 비하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관이 발전하지 않았다. 〈서울대교수 · 산업공학과〉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 · 포교사도 가능)
	4년	• 통신 8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 주간 60명 •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불교미술과	2년	•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 주간 30명 • 통신 8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 · 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 · 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19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2026~8 광주 삼복서적: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제일서림: 424-0801, 대전문경서적: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림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홍지서림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불교전문 지도자(유발승려)교육생모집

1. 설립이념

본교육원에서는 현실에 맞는 실천불교, 체험불교, 생활불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지도자(유발승려)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불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전문 종교인으로서 가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 (※ 자세한 교육과정 내용은 설명회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불교학	종교학	포교학	불교의식(집전)	복지학	상담심리학	명리학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 형 방 법
지도자과정 30명 일반과정 30명	불자 고등학교 졸업, 30세 이상의 남 · 녀	입학원서 1통 본원 소정 양식 1통	원서교부 : 97년1월10일 ~ 2월 28일 접수 : 3월1일 ~ 3월 10일(전형료 15000원)	면접 및 서류전형 공 · 사 기업체 명예퇴직자 우선전형 "

4. 특전

▶ 본원 졸업(전문지도자 과정)수계 후 유발승려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원이 소유한 사찰 및 포교원 원장에 발령 임명함.
▶ 본원졸업(일반과정)수계후 법사자격 부여 본원 포교사 임명
▶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본원과 자매 결연한 해외 종교 기관에 특별 연수

※ 교육과정 설명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본원
대표전화 : (02) 423-1800

우리불교 마음의 절

부설 : 불교전문 지도자 교육원
불자가정 부처님 모시기 운동본부

고은 불교대하소설



"그 섬에 누구 허락을 받고 살기 시작했는가" 사후선 털보장수의 물음에…

인담은 꿈 속의 스승이 멀어져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스승의 뒷모습은 마치 어린 시절 하늘 높이 날리던 연의 실이 끊어져 연이 하늘 속으로 휘적휘적 떠내려가는 것처럼 멀어져 갈 따름이었다.

그는 꿈속에서 엉엉 울지는 않았으나 매우 슬펐다. 그가 걸고 있던 목의 백팔염주가 그 염주를 건 근이 삭았는지 발 언저리로 후두둑 떨어져 흩어졌다.

그때에야 꿈속에서 흩어진 백팔염주 때문에 그 꿈을 깰 수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작은 퇴창문 위의 벽에 걸어둔 백팔염주는 그대로 있었다.

그는 도무지 음직이기가 싫었다. 그대로 누워서 천정 쪽이나 벽이나 햇발을 머금은 문 쪽이나 한동안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혼자말이 있었다.

"내게도 구름의 형(雲兄)이 있고 물의 아우(水弟)가 없지 않은데… 꿈 속의 스승 때문에 이토록 슬프단 말인가. 모를 일이리. 모를 일이리."

그는 이제까지 한 그의 공부가 새삼 헛되다는 생각이 그 슬픔 뒤를 차지하는 마음이었다.

"내 공부에 마근이 들어왔어"
인담은 수행에 대한
뉘우침으로 자신을 새로…

더구나 그런 공부의 어느 단계에 가서 간화선이든 묵조선이든 아니 염불선이든 막론해서 비몽사몽 사이에 보살이 나타나거나 어떤 신이(神異)한 영험이 있게 되거나 하는 일이야말로 선에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무욕도의 공부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우녀야말로 아주 잘 앞날을 알아맞췄는데 바로 그런 경지가 수행의 광상심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인담은 이렇게 누워서 그동안의 수행에 대한 뉘우침으로 어제밤의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자신을 새로 이어가고 있었다.

우녀가 인기척을 보내자마자 문을 열었다.

"어떠신지…" 라는 따뜻한 말투로 위로하였다. 오래동안 허물이 없는 사이 그대로였다. 다른 것들은 다 반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뜻은 변함줄 몰라서 그것이 더욱 낡아보이기까지 하였다.

"망상이 찾아와서 이러고 있소" 라고 말하며 인담이 일어나 앉았다.

그의 모습이 아주 초췌하였다.

아주 못미땅해 하였다.

"… 내 공부에 마근(魔根)이 들어왔어."

사실인즉 선 수행에서 반드시 어긋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마음으로 오롯이 정진하는 일(只管打坐)인 것이다.

내가 어서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던가, 내가 부처가 되어야 한다던가 라는 따위 생각이 있다면 벌써 거기에서는 집착의 세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매미가 나무에 늘어붙어 하루내내 울듯이 선객은 오직 한 마음으로, 아니 한 마음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끄떡없이 앉아 있는 것 자체로 되어야 한다.

인담의 눈물

"무얼 좀 드셔야 하지요?"

"빈 속이 편하오."

우녀는 더이상 인담에게 권유할 것도 없었다. 그때 상을과 소석이 죽을 쑤어서 들고 왔다.

그것을 우녀가 받아 인담 앞에 놓았다. 아무런 말도 없었다. 잔소리 그만두고 어서 먹어두라는 셈인가. 세 여자가 말없이 뒤 수군 두 사람이 섬에 올라와 이것 저것 캐물은 일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 화승총과 칼로 무장한 수군은 본래 이 무욕도는 무욕이라는 이름도 없는 무인도였는데 어떤 내력으로 여기 와서 여러사람이 살게 되었는지를 물었고 그 다음으로 이곳에 몇사람이 살고 있느냐는 질문과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신변을 알기 위한 무뚝뚝한 질문들이 있었다.

우녀가 나서서 차분하게 대답하였으나 수군 중의 하나가 대해와 효영 명오들을 묵자 사납게 훑어보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단 거룻배를 저어서 본선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본선이 떠난 것은 아니었다.



상을도 눈을 지긋이 감고 있다가 슬쩍 떠 무욕도의 어른인 인담을 새삼 경의를 품고 바라보았다.

그들은 효영 명오들에게 먼저 죽을 보내고 나서 인담의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세 사람이 어젯밤의 바다에서 살아난 일 때문이기보다는 아침에 수군의 사후선(司侯船)이 무욕도 부근에 정박한 않아있자 인담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 죽을 떠먹기 시작하였다.

소석이 그 청정한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하였다.

"어서 회복하세요."

다른 배와는 달랐다. 언젠가 대해가 만난 청나라 복주(福州) 일대의 바다를 주름잡는 수적(水賊)들의 배 규모와 엇비슷한 것인데 배의 갑판 위에 2층으로 된 선실이 있었다.

누런 빛깔의 영기(令旗)가 펄럭대고 있었다.

우녀가 죽을 다 비운 인담에게 그런 수군 얘기를 하였다.

"아침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라…."

"서해를 감찰하는 나라의 수군 사후선인 모양이우."

"우리한테 무슨 볼일이 있겠소?" 하고 과연 이 텅빈 바다에 난데없는 화려한 누각이 떠있는 것이었다.

"?"

그러나 인담은 이럴 때일수록 그 자신이 힘을 내어 무욕도의 대중을 평안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어제밤의 그 극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애써 당당해져야 하였다.

"대해가 나와 함께 건너가 봅시다. 효영 명오는 더 정양(靜養)해야 할 것인즉."

그는 대해와 함께 조심스레 배배를 탔다. 대해가 삿대질을 하여 물의 흐름이 바람을 활용하여 나아갔다.

그림처럼 떠있던 사후선은 아무런 동작도 보이지 않았다. 인담들의 배배가 사후선의 위풍당당한 뱃전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야 "탕!" 하는 화승총소리가 났다.

수군 한 사람이 총을 놓은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배의 갑판에는 몇사람이 나와서 인담등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 쪽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왠놈들이냐? 감히."

"소인들은 저 무욕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이란 말이냐?"

"예."

사후선의 간부인듯한 털보장수가 인담들을 던져준 그물을 타고 사후선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배배는 사후선에 딸려있는 거룻배 이물 고리에 맬 수 있었다.

선실 1층의 한군데로 두 사람은 인도되었다.

털보장수가 그들을 맡은 것이 다행이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위인이었다. 충청도 가야산 채약꾼이었던가? 아니었다. 그가 스승 담인의 분부대로 임춘의 문집을 찾으러 황해도 동쪽으로 가던 중 예성강 어귀에서라도 만났던 것이 아닌가 여겨졌다.

"그래 자네들은 계집도 몇사람 함께 사는 모양인데… 그래도 염불이 잘 된단 말인가."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섬에 누구의 허락을 받고 살기 시작하였는가?"

"본디… 아주 옛날 누군가가 그 섬에서 수행을 한 일이 있다 하거니와 근년에는 물살이 험한 곳이라 사람 없는 곳으로 되었다가 제가 처음으로 건너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고 묻지 않았는가?"

"그저 빈 섬이나 임자 없는 것으로 알고."

"조선8도 어디도 다 국왕의 땅인데 어찌 임자가 없단 말인가."

"……."

그때에야 인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규정도 받지 않는 곳임을 새삼 확인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나라에서나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군정(軍丁) 납세와 부역등에서 싹 빠져있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도를 닦는다는 이름 아래 나라에 불충하는 무리가 조선8도의 산중이나 이런 섬들에 살면서 나라의 법을 업신여기는 대역부도의 무리들이 근자에 짐작컨대 무려 몇10만이나 된다."

"……."

"그들 가운데서 변란을 도모하는 일도 적지 않아서 지금 저 관서지방 해안 일대에서 큰 난리를 일으킨 사단이 벌어졌다."

"……."

인담은 난감하였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하였다.

그림 · 조향숙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28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기	불교학특강	불교복지론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상담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종단협 양분 위기 화합정신으로 극복

한국불교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조직인 불교종단협의회내에 최근 별도의 종단진흥회가 결성되는등 불화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 만큼 화합정신을 강조한 종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중생들이 무엇이든 목적을 잘 이루려면 우선 화합해야 한다. 반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합하지 않고 상호간 비협조적이라면 결국은 동악상조(同惡相助)를 하게 된다.

부처님은 상호간 자숙해 자비를 베풀고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러한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등져버리고 종단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스스로 참회하고 일불제자로서 용맹정진해야 마땅 할 것이다.

교단 지도부의 화합정신 회복을 촉구하며 행여 어두운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출가정신으로 거듭하시길 바란다.

〈용담스님 · 서울 화승사주지〉

재활원 봉사 2박3일 '이웃사랑' 공부

지난1월 11일부터 2박 3일간 천마재활원 · 성우원 · 천성아동재활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이 세상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란 것쯤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나도 그 중 한사람 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작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이번 봉사기간동안 가슴으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지체부자유자'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남이 아니었다. 바로 내 이웃이었고 친구였다.

원생들은 내게 싸구려 동정심이 아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몸이 불편한 그들을 보살피며 나의 모습과 이기심을 돌아볼 수 있었다. 비록 몸편한 몸이지만 그 장애를 딛고 서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들을 보고 반성할 수 있었다. 나를 좋아해주고 따라준 예쁜 언니들과 동생들, 또 친구들을 바라보며 '가치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지금 길고 깊었던 2박 3일을 끝내며 이 글을 쓰지만 막상 생각되는 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란 것이다. 이번 여행아닌 여행을 한 봉사기간을 시작으로 참다운 사랑을 베풀어가는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어 기쁘다.

〈우지은 · 부산 남성여자중학교〉



석등바리케이트 조계종 총무원청사 앞에는 석등으로 보이는 장엄물이 처량진입금지를 위한 바리케이트로 설치돼 있다. 쇠줄로 감긴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석등(?)이 안타깝다.

〈박민숙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독자사진

독 자 마 당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FAX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용천사 인근 여관건립 명백한 정신문화 훼손

청도군 각북면 용천사 인근 여관건립은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은 용천사의 의미가를 뿐 아니라 예술의 고장, 창작의 산실이다. 더구나 여관이 들어설 자리는 학원 바로 건너편이다. 교육과정서적으로 유해한 업소를 만들려는 업자의 사고방식이 의심스럽다.

여관건립을 허가한 청도군의 졸속행정에 개탄과 '여관하나 들어선다고 해서'라는 몰환경인식을 가진 청도군수의 발언에 더욱 분개한다. 지역 환경을 망치고 정신을 오염시키는 여관건립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구불교산악회〉

제언

경복궁 불교유산 제자리로

조선총독부 건물이 해체되고 이제 경복궁이 옛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얼마전 불교계에서는 경복궁 경내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비롯 26점의 불교문화유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불교유산을 불교계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이 불교유산들은 일제가 경복궁을 공원화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경내에 옮겨진 것이거나 일본인들에 의해 몰래 밀반출 되었다가 돌아온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훔쳐간 장물(?)과도 같은 것들이므로 본래 주인인 불교계에 되돌려 주어서 관리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당국의 주장은 이들 문화유산들이 불교계 소유만이 아닌 '민족문화재'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득력도 없고 일관성도 미약하다. 만약 당국의 주장대로 고유의 소유권을 무시한다면 각 사찰을 비롯하여 단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화유산물도 당국이 압수(?)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전제국가나 공산국가를 제외한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때 도난과 훼손 등 관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탑 석등 부도 등 몇 곱절이나 더 많은 문화유산이 빈 절터에 현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한 예로 남한강가에 있는 법천사지의 부도탑은 일제가 밀반출하려다가 실패하여 경복궁으로 옮겨다놓았지만 그와 짝하고 있던 지광국사의 탑비와 당간지주 등 여려 점의 유물들은 장구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원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당국의 주장이야말로 일관성이 없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당국 관리하에 방치되거나 훼손된 것이 더 많음을 우리는 여러차례 여러곳의 답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 한 예로 언젠가 당국이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다른 건물을 지어 옮기려다 실패한 일이 있다. 만약 그 때 팔만대장경을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면 우리의 팔만대장경은 벌써 썩어버렸을 것이다. 물론 원위치로 되돌려놓았을때 관리와 보존이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가능한 것은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일제가 훔친 장물을 해방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가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채희 · 두레문화기행 간사〉

타종교 비해 포교부진 "사부대중 나서자"

조계종이 97년을 전법의해로 지정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불자된 한 사람으로 기쁨과 소명의식,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날이 갈수록 정법이 쇠퇴해지고 온갖 이단마설(異端魔說)이 횡행하는 이 시점에서 전법의해 선포는 이 땅에 다시 불교부흥을 이룩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그동안 불자들은 '포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깨달음과 그에 따른 겸손이 지나쳐 포교엔 무방비 상태였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신교를 비롯한 타종교의 경우 지하철, 버스안, 심지어 기차안에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전하는데 광적이다. 불교도 타종교처럼 상식선을 벗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덤비자는 것은 아니다. 그저 진정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종단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단은 불자들의 신행에 맞는 법회의식과 교리를 체계화 해야하고 불자들은 전법을 위한 신행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때 전법의 해는 올곧게 회향될 것이다.

〈박치민 · 부산시 남구 문현동〉

철새마저 쫓아내는 지역이기주의에 아연

최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의 인근 주민들이 갈대밭을 불태우고 철새들을 쫓아버렸다는 기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고속철도의 경주 통과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문화재를 걱정하는 사람들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설악산 일대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추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위를 피하여 먹이를 찾아 온 철새들마저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0군데의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지역이 있다. 그 밖에도 1973년에 일시에 해체된 창녕 우포늪을 비롯한 12군데 지역과 주남저수지와 같은 보호해야 할 생태계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노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도 많다. 자연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창녕 우포늪은 1억 4천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지형이 형성될 때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십년 사이에 그 오랜 역사의 자연과 문화재를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훼손하고 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 선진국은 될 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후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성재도 · 부산불교교육원〉

'보이스카웃' 誌 종교편향 만화 '유감'

보이스카우트는 청소년들이 인격양성및 사회봉사를 위한 교육훈련단체다.

그런데 이 단체서 발행하는 월간지 〈보이스카웃〉 96년 12월호(54면~57면까지)에 종교편향적인 내용의 만화가 게재됐다. '십자가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이 만화내용은 두 사람의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성지순례를 하면 죄를 사해주겠다는 성자의 지시에 따라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도 가끔 십자가의 무게를 줄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요. 작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면 더욱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라고 끝맺고 있다.

특정종교와는 관련이 없는 청소년단체의 잡지에서 이와같은 종교적인 내용의 만화를 게재한 것은 설령 비유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민감한 다종교 현실에서는 신중을 고려 했어야 한다.

〈보리방송모니터회〉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이것은 편벽(偏僻)된 외도들이 자신은 부처님의 계율을 가질수 없다고 생각하여 받으려 하지 않아 도(道)를 얻지 못하고 생사에 떠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뜻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색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퇴행성 관절염 전문
좌골 신경통 (3회끝)
543/7306 711/4370
張三洙 합장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
우학스님 수필.시.소설
■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탈종공고
일붕선교종
사찰명 : 쌍용사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연동 403번지
주 지 : 김충남(천호)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 · 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년 2월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1동, 산신각1동, 미륵님, 요사채2동(현대식), 사용평수 :1300평
■ 가격 : 1억2천(가격절충가능)
연락처 : 0576)862-0674

간경화 · 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사찰안내
▶ 위 치 : 장호원(발전요충지)
▶ 대 지 : 437평 ▶ 법당 : 27평
▶ 사무실 : 15평 ▶ 요사채 : 42평(방15개)
▶ 매매가 : 3억4천(급매)
▶ 전 망 : 평당 150만 이상의 요충지
☎ 0336)643-9051 · 0331)224-4995

포교당 안내(하실분)
●위치 : 도봉구 수유리 32평 4층
●보증금 : 3천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 1천5백만원
※ 상담후 절충가능
전 화 : 902-9178
3492-4678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대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선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王 합장

氣 치료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포교당 안내
▶ 위 치 : 부천시 중동 신도시 입구
▶ 전 세 : 3천3백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연락처 : 032)656-7523

포교당 안내
▶ 50평 ·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기타절충
연락처 : 02)248-0479

사원모집
전통사찰음식 보급에 뜻을 둔 유능한 인재를 널리 초빙합니다.
▷ 경리 1명(PC가능자)
▷ 유통관리 0명
(불교용품 취급 유 경험자 우대)
연락처 : (02)245-0904
전통사찰음식 연구소

이젠 마음 비우거라 | 혜인스님 지음

출가후 체험토대 正道이끄는 수상집



서울 불심사 주지 혜인스님이 쓴 〈이젠 마음 비우거라〉는 "이웃을 위해 따스한 교감을 나누고 함께 호흡하는 신선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잔잔한 수상집이다.

입산출가 이후의 체험을 한편의 산뜻한 수묵화처럼 그리고 있는 이 책은 인간의 마음밭(心田)에 '실천하는 삶' '깨어있는 삶'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제시하는 '참'과 '존재'와 '진리'를 가득 담고 있다. 일상의 번잡을 작은 것 하나 놓치는 법이 없으면서도 따스한 눈길로 그 일상의 분주함을 응시하는 혜안이 자비롭기만 하다. 스님은 "불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철학이다"고 말한다.

〈삼과꿈 6천5백원〉

화제의 책

유식입문 | 이지수 옮김

현대인을 위한 쉽게 쓴 유식학 개론서



"유식에서의 불교의 목적은 우리 의식에 있는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여 바른 정보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동경대 명예교수인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가 쓰고 동국대 이지수교수(인도철학)가 번역한 〈유식입문〉은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비유를 통해 쉽게 유식(唯識)을 설명한 개론서다. 유식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증변분별론(中邊分別論)'과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유식삼십송' 등을 한 송씩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유식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낡은 개념을 새롭게 고친 명칭을 사용하면서 복잡한 개념에 대해서는 도표를 제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시공사 6천원〉

화제의 책

문화전쟁 | 윤재근 지음

"한국인이여 주체적 문화정신 키우자"



"문화는 기호품이 아닌 필수품이다. 그것은 앞을 내다보는 눈과 같다. 문화교류는 겉치레이고 그 실속은 치열한 전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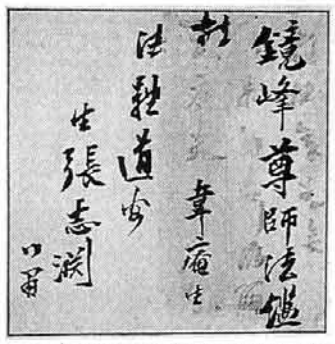
윤재근 한양대교수(국문학)가 펴낸 〈문화전쟁〉(둥지刊)은 서구문화를 모방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문화의식을 비판하고 21세기에 더욱 치열해질 문화전쟁에서 도태되지 않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집필기간 23년, 200자 원고지 2,400여장이 소요된 대작이다.

이 책을 '한국인에게 던지는 문화상소문'이라고 부르는 저자는 "원효 균여 박세당 김만중 정약용 등의 선학들이 보여준 자문화 중심의 정신을 흠모한다"고 말한다.

〈둥지 1만5천원〉

"선사들의 편지 어떤 소식 담겼을까"

근·현대 선종사 엿볼 서간문집 2권 출간



◇ '시일아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쓴 장지연거사가 경봉선사에게 보낸 편지.

대선사 대강백들의 편지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세간의 서간(書簡)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격외(格外)의 문구(文句)로만 가득차 있을까.

근세 한국 고승의 편지글들을 모은 서간집 〈삼소굴소식(三笑窟消息)〉(극락선원刊)과 〈남은 글월 모음〉(효림 刊)은 이같은 궁금점을 시원스레 풀어준다. 〈삼소굴소식〉은 경봉(鏡峰; 1892~1982)선사가 남긴 2백여 근·현대 고승들의 편지들을 모아 번역한 책이며, 〈남은 글월 모음〉은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이 소장한 서간문을 모아 엮은 책.

중국 선종사를 장식하고 있는 원오(圓悟)선사의 〈심요(心要)〉나 대혜(大慧)선사의 〈서장(書狀)〉등이 모두 서간문 형식의 법어집임을 생각할 때 이 두권의 서간문집들은 근·현대 한국 선종사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또 이제는 거의 사라져 가는 서간문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문학사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명정스님(통도사 극락선원장)이 역주(譯註)한 〈삼소굴소식〉은 경허선사(1849~1921)로부터 경봉스님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고승 177명의 편지 247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도심(道心)에 입각한 치열한 정진과 수행을 점검하는 禪門답으로 가득한 이 책은 근세 1백년간의 종단 원로와 선지식들의 생생한 절집안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특히 이동인 한용운 스님과 유대치 장지연거사 등 유명한 지사(志士)와 경봉스님과의 서신왕래는 암흑기 한국불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허 만공 한암스님을 비롯한 선지식과의 법거량은 생사의 일대사(一大事)를 가늠하는 선사들의 예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1927년 12월 21일 경봉선사가 견성한 뒤 오도송(悟道頌)과 견처(見處)를 한암 제산 용성 만공 등 여러 선지식과 주고받은 깨달은 뒤의 보림(保任)소식은 접하기 힘든 희귀한 글들이다.

석주스님이 엮은 〈남은 글월 모음〉은 30여년전 운허 청담 고암 성철스님 등과 함께 만든 '돌모듬(축대를 다 쌓고 남은 돌들을 모아 놓듯이 교계의 일을 상의하고 우정을 나누자는 뜻)'이란 모임을 중심으로 주고 받은 19명의 30여통 서간문을 모았다. 무심(無心)속의 다정함과 각별한 예절등을 느끼게 하는 이 책은 당대의 선필(禪筆)로써 일가를 이룬 남전 한암 구하 환경 경봉 홍경 향봉 벽안스님 등의 글을 원문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석주스님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근·현대 스님들의 편지글 형식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대 고승들의 명문장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삼소굴 소식

경허스님에서 경봉스님까지 177명 수행 선문답 담아

남은 글월 모음

운허·청담·고암·성철스님 등 법담 나눈 글 석주스님 엮어

출판시소

정토신앙 본질 밝힌 신행서

충담스님 '염불 정토삼부경' 펴내



태고종 원로인 충담스님(84·승가사 조실)이 정토신앙의 근본경전인 〈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 등 3부경전을 편역한 〈염불 정토삼부경〉(한국불교출판부 刊)을 펴냈다.

정토신앙의 본질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신앙자세와 방법을 상세히 밝힌 이 책은 현대인들을 위한 신행 길잡이 역할을 한다. 고려대장경의 3부경 원문을 그대로 축소영인, 한자에 한글음을 달아놓아 독송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원문과 해역(解譯)을 대조해 볼 수 있게했다.

"풍토학으로 본 우주의 생성"

김유혁교수 '당신은 바람을…' 출간



천태종전국신도회장인 김유혁 단국대교수(도시공학)가 자연환경(風土)을 통해 우주생성의 원리와 전통풍습의 의미를 설명한 책 〈당신은 바람을 보았습니까〉(효형출판 刊)를 펴냈다.

단국대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풍토와 인간'이란 강좌의 지상중계 성격을 띤 이 책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이해하고 환경친화적 정신을 갖게 하는 재미있는 풍토학론이다. 종교 철학 역사 문학 환경 풍수지리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문화도서 자료집 발간

문체부, 물서등 2백여종 선정



문체부는 주요 문화관련도서의 정보를 수집·정리한 〈문화관련 도서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95년 10월부터 96년 12월까지 문체부에 납본된 신간도서 가운데 문화비평·예술이론 등 종합적인 문화관련 전문서와 문화재, 민속, 미술, 문화답사, 해외문화 등 각 분야의 안내서 200여종을 선정, 도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일별로 정리했다. 이중 물서는 △한국문화와 불교(불교시대사) △한국사찰의 주련(전원문화사) △불교민속학의 세계(집문당)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일지사) △한국 불교미술사(솔) △문화유산-명찰(한국문원) 등 16종이다. (02)720-3844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2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세계사
5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
6	그 마음을 바처라	김재웅	용 화
7	禪 이야기	일 지	운주사
8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9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10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티베트 死者의 書

인간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한번 죽음의 관문을 거치게 된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죽으면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모든 것은 끝나고 마는가? 영육(靈肉)은 부활하는가? 윤회(輪廻), 전생(轉生)은 있는 것인가? 종교에 따라 여러가지 논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쯤은 생각해 본다.

인간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 철학이나 종교 분야의 책들은 많이 있다. 그 가운데 필자는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경서원 刊)를 소개하려 한다. 이 책은 티베트 불교연구의 선구자인 옥스포드 종교학 교수인 W.y. 이반스웬스 박사와 티베트 어학자인 라마가지 다와삼답 스님에 의하여 1927년 세상에 소개되었다.

이 책은 윤회하는 존재를 유(有)라고 하고, 이 유가 태어나는 것을 생유(生有)라고 하며, 이 유의 죽음을 사유(死有)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생유와 사유의 중간상태를 중유(中有) 또는 중음(中陰)이라고 한다. 이 중유의 기간은 49일간이며, 이 기간의 영혼을 중유신(中有身) 또는 중음체(中陰體)라고 한다. 우리는 불교의 상례로 49재라는 절차에 종종 참여하는데 이것은 위와같은 불교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사자의 서〉는 중음의 기간중에 있어서의 천도(薦度) 즉 티베트어로 바르도 쒜돌(BARDO THODOL)에 관한 책이다. 이 중음체는 49일동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 이 중음의 과정은 해탈하여 열반의 경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미오(迷悟)의 세계 즉 육도에 윤회를 거듭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이러한 중요한 기간에 해탈을 얻도록 천도하는 절차와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이를테면 길을 떠날 영혼에 대한 인도서이며 교리이며 천도 밀법인 것이다. 그리고 다만 듣는것 만으로도 사자를 해탈·열반케 하는 교리인 것이다. 중음천도의 목적은 지도 승려(導師)가 중음의 과정을 헤매고 있는 사자에게 그 자신의 환각의 성질을 설명해 주어 마치 꿈속을 방황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몽롱한 상태에 있는 사자에게 실체법계(實體法界)를 깨닫게 하고, 아뇩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正覺)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다. 대체로 '오! 기품있게 태어난 이여'라고 부르면서 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어떻게 인식하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주문(呪文)도 소개하고 있다.



황 영 선 〈변호사〉

"49일 중음의 과정으로 초대 生과 死의 의미 명상할 기회"

심리학의 새로운 논리를 전개한 20세기의 대석학 칼 구스타프 융 박사는 이 책을 애지중지 하면서 극구 찬양하고 있다. 바르도 쒜돌은 삶이란 죽음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종교적인 믿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생리학적인 요가라고 하는 과학에 의하여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설령(雪嶺)의 현자(賢者)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읽고 명상에 잠겨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삼중스님이 그려보는 이 시대의 자화상!

배고프면 먹고 졸리우면 자고

최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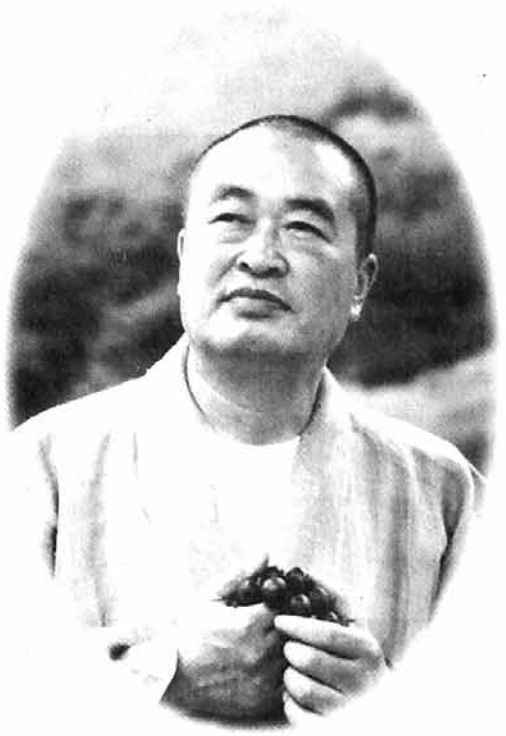
바르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비뚤어진 세상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삼중스님의 살아서 펄펄뛰는 선어(禪語)와 풍자!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차라리 옛날이 그립다고,
앓아지는 월급봉투, 가벼워지는 호주머니,
명예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밥줄,
사람만 있고 사랑은 없는 이 시대를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인간 군상들에게
행동하는 부처 박삼중 스님이 전하는
맑고 시원한 샘물 같은 메시지!

■ 신국판/296면/값 6,500원

가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욕심에 욕심을 부려 욕심으로죽는가 하면 지식에 지식을 파다가 지식에 묻히기도 한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인 줄 알고 땅을 보면 땅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일상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잠시 자신과 주변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작은 상식에
얽매였던 틀을 깨도록 문자와 언어와 형상조차 바람일 뿐인 세계로 안내하고 싶다.

- 작가의 말 -



철학과 은유, 웃음과 풍자가 가득한 스님의 글 속에서
우리는 닫혀진 눈과 귀, 가슴과 머리를 흔들어 깨우는
인자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삼중스님 에세이

15쇄

걸망에서 배운 인생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늘.....
걸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목탁 하나, 금강경, 그림 몇 점 담긴
남루한 걸망이 때로는 부끄럽고 번거로웠다.
그러나 숱한 삶의 고비길에서 버살 아닌 보살들을 만나며,
꺾이는 마음의 합장을 곧추세웠다.
살아 성불하기보다 자비한 미소 한줌 잃지 않으려고...

■ 신국판/320면/값 6,000원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 철창 밖으로
띄우는 참회의 편지 최초 공개!

24쇄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 2

제1부 참회의 눈물로 보낸 나날들
제2부 어머님 전상서

사회가 극도로 어지러우니 사형수인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적어봅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해져 있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성자였습니다.

■ 신국판/전2권/각권 값 5,500원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팔만대장경 '서울 나들이'

5월 9~29일 호암갤러리

'97 문화유산의 해

패엽·석경·조선경판도… 판각·인경 재현
700년 보존 판전 과학적 신비 공개도

세계적 문화재인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오는 5월 서울 나들이를 한다. 해인사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 주최, 삼성미술재단 주관으로 오는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3주간 호암갤러리에서 열리는 '고려대장경관 전시회'는 해인사 팔만고려대장경관과 사간판 과 함께 △패엽경 (동국대 소장) △티벳 장경관(동국대 소장) △조선시대 경관 (봉은사 소장) △신라시대 석경관(화엄사 소장) 등 총 40여 경관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경관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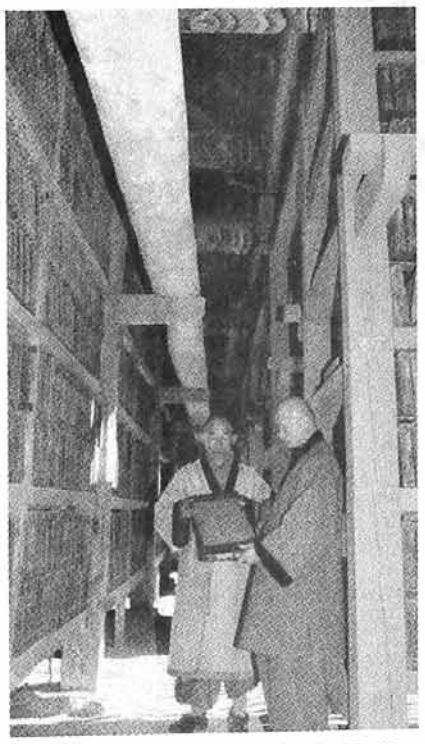
또한 해인사 관전에 대장경관이 이운(1398년)된 지 꼭 600주년이 되는 해가 1998년. 이번 전시는 '97 문화유산의 해와 경관이 운 600주년을 맞아 세계적 성보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영구히 보존 계승하자는 뜻으로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관람시켜 그 정신문화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은 전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장경판뿐 아니라 판전(국보 52호)의 과학적 신비까지 고스란히 공개된다. 통풍 방습 실내온도조절효과 등 대장경관이 700여년동안 완벽하게 보존되어 온 신비의 핵심이 되는 관전의 구조를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판전 내부와 외부 사진, 해인사 가람의 구조 등이 대형사진들과 종합모형물로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인쇄술 발달 이전의 필사본 , 전각, 목판인쇄본, 최초 활자인쇄본과 최근의 컴퓨터전산화본 등 인쇄술의 발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며 산벚나무, 오동나무 등 경관에 쓰여진 나무 10여종과 극세한 나무구조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대형사진도 전시된다. 이와함께 사경과 판각, 인경, 그리고 컴퓨터전산화 등 대장경 경관 제조 전과정이 전시현장에서 생생하게 재현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주관하는 해인사 기획실장 무관스님은 "오는 2002년이면 법보종찰 해인사는 창사(創寺) 1200주년을 맞는다"며 "이번 경관전시회는 법보종찰로서의 해인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해인사가 21세기 불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심사찰로 이시대 올바른 정신문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재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취지를 설명했다.

이경숙 기자



◇'97 문화유산의 해와 해인사로의 경판이운 600주년을 기념하는 고려대장경관 전시회가 오는 5월 호암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진은 판전의 경판 모습.

불심시심 〈76〉

봄 와도 봄을 몰라

盡日忘機坐(진일망기좌) 기미마저 잊고 종일 앉아 있자니
春來不識春(춘래불식춘) 봄은 왔지만 봄인 줄도 모르네
鳥嫌僧入定(조혐승입정) 새는 선정에 든 스님이 미워서
窓外喚山人(창외환산인) 창 밖에서 산사람을 불러대고 있네

지난 두 회에 걸쳐 환성스님은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소박한 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시도 그저 담담하기만 한 시임을 즉각 알게 한다. 이것이 바로 스님들의 참모습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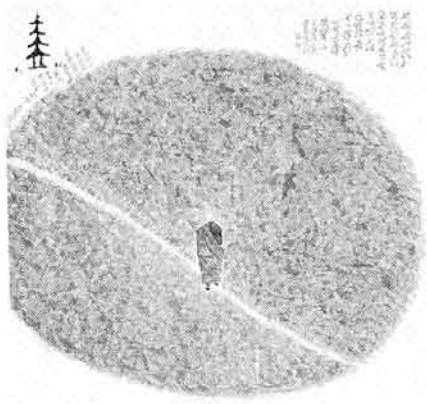
위 시는 '그윽한 읊조림(幽吟)'이라 제한 시이다. 곧 조용히 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스님들의 조용한 일상사를 시로 표현하려는 것이다. 극히 일상적인 소재이다. 이 일상적 소재가 바로 삶이기는 하지만, 이 일상적인 것을 글로 표현하려 하면 그것 이상으로 막연한 것도 없다. 표현의 남다름을 가지려면 소재 자체가 남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스님들에게 있어서, 시문이 전문적 문학인보다 담담한 것은 바로 이 일상성을 삶의 진실로 보는, 일상사가 바로 선이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위의 시도 이 일상사가 바로 선이라는 담담함에서 우러난 진실이다. 첫 구에서의 기미를 잊고 앉아있다는 망가좌(忘機坐)에서 스님들의 일상사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망기라는 말을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는 수양이나 수도의 경지를 나를 잊는다는 망아, 혹은 삶의 지표라 할 도를 잊는다는 망도(忘道)로 표현한다. 이는 아직까지도 잊음의 대상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잊어도 다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스님들이 말하는 이 망기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원초적 계기인 기미까지도 잊어야 한다 함이니, 그 격이 월등히 높은 한 수 위이다.

이 시는 이러한 망기가 전제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스님들에게 인간세사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계절의 오고 감이 의식될 것이 없다. 사철의 계절 어느 것인들 계절적 특색이 없으리오마는, 겨울이라는 우울을 견디고 맞는 봄은 그래도 색다른 것이다. 그 봄을 모른다함은 계절도 의미없다는 상징이다.

새는 봄을 알리는 전령이다. 자연이 새를 시켜서 봄을 울리게 하는데 스님은 봄 자체를 모르니, 새가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새의 울음은 이 계절을 모르는 산승을 부르는 것이다. 망기의 스님이 봄을 모른다 함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새의 울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다. 스님의 망기는 바로 자연을 가장 가까이 하려는 지기(知機)의 전제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박종회 作 '기원'. 수묵담채.

박종회씨 개인전 수묵화 '진수'

18일까지 공평아트센터

문인화에 오랫동안 정진해온 참현 박종회씨(52)가 오는 18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 1~2층 전관에서 6번째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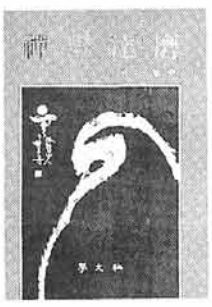
전시회에 나온 150여 작품들은 석관을 이용한 문인화를 비롯 〈대학〉등 동양고전에서 뽑은 글귀들을 둔자로 디자인하거나 갈색 청색 글씨로 회화성을 살린 것, 신라향가에서부터 한용운 등의 명시를 글과 그림으로 형상화한 작품 등 매우 다양하다. "현대적 감각의 문인화를 위해 부단한 실험을 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전통문인화의 주제와 정신을 살리면서 현대에 접목시킨 새로운 시도의 현대수묵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종회씨는 오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또 한차례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달마도 233점 모아 화집으로

범주스님 '선묵달마'…30년 그림수행 결산





30여년동안 달마도 등 선화를 주로 그려온 범주스님(달마선원장)이 그동안 그려온 달마 233점을 모아 화집 〈선묵달마(禪墨達磨)〉를 펴 냈다. 강력한 감필(減筆)의 묵선으로 구사된 의습의 두드러진 표현과 간략한 현대적인 조형어법으로 현대적 달마를 창출했다는 평을 들어온 범주스님은 이번 화집에서 '반신달마' '좌선달마' '행선달마' '절로도강달마(折蘆度江達磨)' 등 여러가지 모습의 달마를 모았다. 재미있고 다양한 모습의 달마를 볼 수 있는 이번 화집발간에 대해 범주스님은 "30년 그림수행의 중간결산을 해본것"이라 말한다.

범주스님은 달마도의 시제(詩題)를 한글로 넣었다. 달마스님과 역대 조사들의 선어록을 알기쉽게 풀이한 것. "탐진치와 갈등이 갈수록 더해가는 이 세상은 달마선 사상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달마 그림과 시제를 보며 사람들이 탐진치에서 벗어나 달마선사의 지혜와 자비를 느끼고 평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내 외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가진 바 있는 범주스님은 화집발간을 기념해 오는 6월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또 한차례의 달마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숙〉



◇봉서사 작법무. 사진이 설명과 함께 수록돼 있다.

'한국의 전통춤' CD-롬 발간

작법무등 146종 수록…유형별 특색 정리

봉원사작법무 등 전통춤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사진 동화상 등이 한장의 CD-ROM에 수록됐다. 문화체육부가 최근 제작해 내놓은 CD-ROM '한국의 전통춤'에는 △종교의식춤 △민속춤 △교방춤 △궁중정재춤 등 분야별로 종목별 춤의 설명문과 정지화상(355장) 동화상(36종) 용어사전(638개 단어) 등이 들어 있다.

종교의식춤에는 봉원사와 봉서사 작법무, 각지역 굿 등 19종목, 민속춤에는 각 지역 농악, 탈춤 등 62종목, 교방춤에는 이매방류 승무, 강선영류 태평무 등 12종목, 궁중 정재춤에는 처용무 학무 헌선도 등 53종목 등 총 146종의 전통춤이 수록됐다. 이 CD는 우리나라 전통춤의 역사성과 유형별 특색을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문자 또는 음성으로 해설해 놓아 기록보존 및 연구 교육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 CD-ROM에 실린 사진자료는 분야별로 배경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도 있다.

원고집필은 정병호 중앙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이병옥 용인대교수, 성기숙 무용평론가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불교미술대전 출품작 공모 28일까지 접수

불교미술작가들의 최대 등용문인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이 오는 3월 개최를 앞두고 2월19일~2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예배용(전통·회화 조각 공예 건축)과 △감상용(순수·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으로 나뉘어 공모되는 이번 불미전의 원서교부는 오는 26일까지(02-739-1830).

출품자격은 만 20세 이상으로 불자여야 하고 출품수는 1인 2점(출품료 1점당 3만원)이내로 국내외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타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아야 한다.

불미전의 최고상인 대상(종정상 1명)의 상금은 지난 대회보다 배가 오른 1천만원, 금상(총무원장상 각 1명)은 각 7백만원, 은상(우수상 각 2명)은 각 2백만원, 동상(장려상 각 4명)은 각 50만원, 특별상(문화체육부장관상 1명)은 상금 1백만원으로, 입상작및 심사위원 발표는 오는 3월 5일이다.

불미전에서 입상된 작품들은 오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서울공평아트센타에서 전시된다.

96 한국번역상 고은시집 '조국의 별' 독어판

시인 고은씨(본지 논설고문)의 독일어관 번역시집 〈Die Sterne Uber Dem Land Vater: 조국의 별〉이 지난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연회장에서 한국번역가협회(회장 류근주)가 공동 주최하는 '96 한국번역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집의 독일어 번역은 번역문학가인 지그프리트 샤르슈미트씨와 채운정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보은의 선물 · 감동의 선물
최고의 건강 선물
역시 산삼입니다

長腦 山蔘

존경하옵는 불자님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불을 축원드리오며
지난해 힘들고 지친 심신을 새상품 산삼으로 기력 회복시켜드리고자
보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사오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장뇌산삼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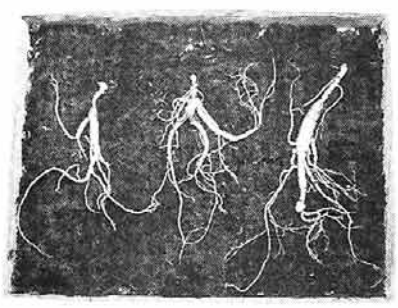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로 경이적입니다.

'겨울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207-8387
0346)591-3989

홍천임업협동조합 공급하는
10~30年根 수량제한 한정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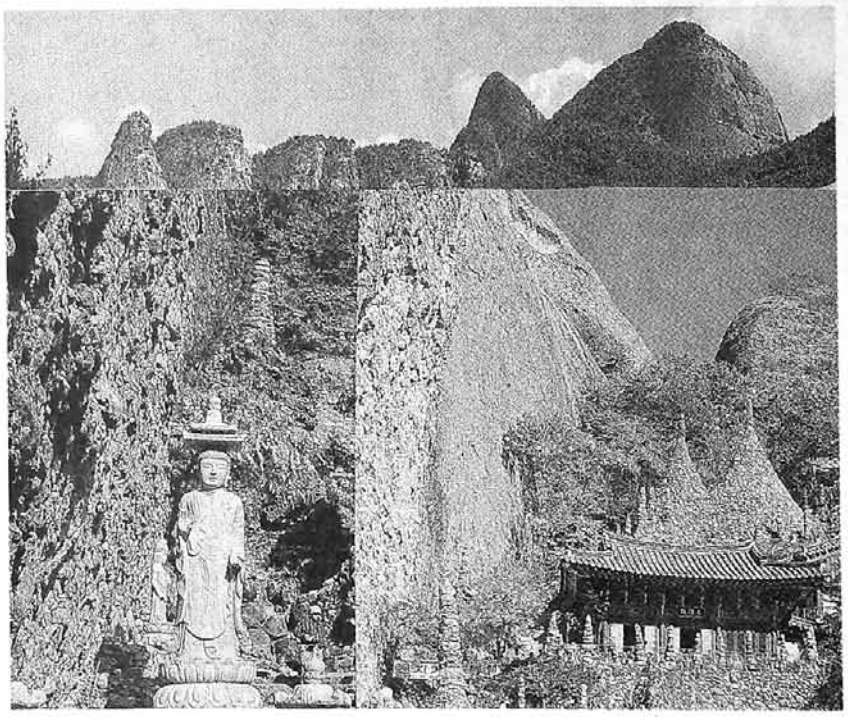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어 가짜로 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급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禪마저 돈으로 계산 美 자본주의 습성

"수행의 세속화 경계 하자"

스님·교수 등 트리사이클誌 통해 지적

선원을 찾는 미국 불자들이 돈가치로 득실을 따지는 일상 습성을 수행에까지 연결시켜 미국 불교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재가불자에게 불교교리와 명상을 가르치는 라이싱교수(메사츄세츠大 유전학)를 비롯해 나이스테드씨(삼발라선 편집위원) 더글라스스님(몬타나사원) 타니시로스님(캘리포니아 Metta Forest 사원) 등은 트리사이클지 최근호에서 "무엇이든 돈가치로 재고 계산하는 세속의 산술습성이 정신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삼발라선원에서 명상수행을 가르치는 나이스테드는 "선원을 방문한 불자에게 하루 한시간의 명상을 권할 때 대부분은 하루에 명상을 3시간하면 이틀동안은 선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품는다"며 "일상에서나 사용할만한 산술개념을 명상에 임해서까지 적용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글라스스님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기술학원에서 수강료를 지불하고 기술교육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선원에서 지내기 위해 일정한 수강료를 지불했더라도 수행은 수강료와는 무관하며 선원이 마련한 하루 일과를 잘 따르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며 불자들이 수행의 득과 실을 따지는 그릇된 수행관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님 진리를 배우려는 재가불자의 첫째 덕목이 '구하는 자세'라고 말하는 타니시로스님은 "태국에서 재가불자들이 스님에게 재물을 보시하는 것은 꼭 재물의 대가를 바란다기 보다는 부처님 진리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시는 재가불자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사츄세츠의 선원에서 재가불자를 가르치고 있는 라이싱교수 역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인들은 설혹 불자라 할지라도 돈과 관련된 일상에서의 편견과 습성을 먼저 극복하지 못한다면 수행도 세속화되어 깨달음이라는 지고지순의 성취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외불교

"버마불교 살리는 미국인"

스티븐, 후원회결성 구휼운동 전개

50명에 장학금 지급…보건·의료 사업도

한 미국인 불자가 '버마불교후원회'(Metta-Dana Project)를 결성해 버마(미얀마)의 승려와 가난한 불자들에게 보시공덕을 베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90년대 초 버마성지를 순례하며 참담한 현실을 알게 됐다는 S.스티븐슨(美, 버마불교후원회장)이 그 주인공.

미국 〈대법륜〉지(美)에 S.스티븐이 호노룰루(美, 하와이)에 본부를 둔 버마불교후원회를 결성하고 기금과 구호품을 조성해 구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버마의 와체트(Wachet) 초등학교. 이 학교의 1년 수업료는 1인당 약 2만원. 그러나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중 75%는 2만원의 교육비조차 큰 부담으로 여기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버마불교후원회는 현재 이 학교의 50여명에게 연 2회에 걸쳐 4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불교평화연맹(BPF, 美)으로부터 차량과 의약품을 지원받아 버마의 북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을 시키는 등 의료사업에까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버마는 지금 디즈니社(美)가 들어와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상업주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있다. "자본주의는 침체된 버마경제에 발전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가뜩이나 쇠약해진 버마의 고유 문화를 더욱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스티븐은 "지금까지 버마불교를 압박했던 정치적 박해가 조금 완화된 시점에서 서구 문화의 침투는 버마불교의 재생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버마불교후원회는 버마불교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기금 마련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후원회는 인터넷(mettadana@aol.com)을 활용해 세계 불교계에 버마불교계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기금조성을 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종단소식

장애인협 위로 방문

태고종총무원(원장 인곡)은 지난 1월 30일 상계동 대한장애인협회를 방문하고 연료비와 겨울옷 12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위문법회에서 사회부장 백운스님은 "몸의 장애를 딛고 열심히 삶을 개척하는 여러분은 자비의 화신이다"며 "보다 열심히 정진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인사서 정초참배

천태종(총무원장 운허)은 9일부터 15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신도 정초참배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전국사암과 각 단체에서 30여만명의 종도들이 구인사를 참배하고 종정 도용스님을 예방한다.

총지종조 탄신 90돌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지난 1월 29일 본산 총지사및 전국 사원에서 총지종 종조 원정대종사 탄신 90회 봉축법회를 개최했다.

이날법요식에서 법공통리원장은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주창하였던 종조의 유지를 받들어 대사회적 운동인 소비자보호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폐기장 반대 행렬 덕목리폐기장반대위(위원장 정견스님·심복사 주지)는 지난 4일 심복사 문화자 수호와 덕목리 환경보존 결의대회를 열었다. 〈본지 91호 15면 참조〉 이날 참가자 5백여명은 평택문예회관에서 성동초등학교까지 폐기장철회 행진을 벌였다.

재가불자 발원

제주 광제사 낙성

제주도의 재가불자 18명이 '시비없는 법당' 건립을 발원, 5년여만에 사찰을 건립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주시 외도1동 1천5백여평의 대지에 들어선 광제사(주지 법우)는 지난 1월 26일 봉불식과 함께 50평규모의 법당 낙성식을 가졌다.

광제사는 지난 93년 이경희씨(제주조선소 사장)를 회장으로 '시비없는 법당 건립위원회'를 결성하고 땅 구입에서 법당 설계, 못질 등 허드렛 일을 추진위가 직접해냈다.

회장 이경희씨는 "보시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누구든 평등하게 신심을 진작하고, 내집 드나들듯 존경받으며 다닐 수 있는 사찰이 '시비없는 도량'"이라며 불우이웃을 위한 안식처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리 사고' 수습대책위 구성

불교방송 이사회, 영담스님 위원장 선임

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경리사고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번사건의 총체적인 재조사작업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3면〉

상임이사 영담스님(조계종 종회의원 석왕사 주지)을 위원장으로 홍승희(진흥원 이사) 효강(총지종 법장원장)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를 토대로 회계감사의 범위를 확대, 94년도 까지 정밀재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수습대책위는 또 방송국 자체대책위원을 포함하는 실무위원을 조만간 구성,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불교TV의 다큐멘터리 '신왕오천축국전'은 불교최초의 석굴사원 아잔타 에롤라등을 찾아가는 감동의 대탐사 과정을 보여준다.

혜초스님 서역순례 '영상 재현'

불교TV '신왕오천축국전' 10일부터 8부작 방송

혜초스님의 서역순례기를 영상으로 꾸민 8부작 특선다큐멘터리 '신왕오천축국전'이 10일부터 매주 월, 화요일 낮 1시 5분 불교TV를 통해 방영된다.

경주를 떠난 혜초스님이 중국 광주를 거쳐 인도네시아 인도의 니코바르군도 등을 통과해 인도남단에 이르렀던 죽음의 뱃길을 시작으로 켈커타에서 파트나에 이르는 길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통해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처음 공개했다. 그 뒤 강할머니는 4년 동안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시위에 참가했고, 1시간여의 시위를 마치고 나면 며칠씩 앓아누워야 했다. 그러나 다음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 일본의 공개사과와 정부차원의 배상을 외쳤다.

폐암말기에다 장폐색, 폐렴까지 겹쳐 손가락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이 나약해져버린 강할머니지만 죽음앞에서도 끝까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주장했다.

'역사에 남기는 작업' 그것은 어쩌면 강할머니에게 끝없는 화두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또한 강할머니의 유일한 유산인 유형의 그림과 무형의 정신은 나눔의 집에서 못내 가슴의 응어리를 지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신대할머니들의 삶을 지속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나눔의집은 지난 4일 강할머니의 영결식에 이어 조계사와 일본대사관앞에서 노제를 지냈다. 강할머니의 유해는 나눔의집에 안치됐다.

목탁소리

강덕경할머니 가던 날

도 필 선 〈취재 1부〉

자신과 조국의 참담한 과거를 '빼앗긴 순정' '분함' 등 20여편의 그림과 시위를 통해 증언해온 정신대 강덕경할머니가 지난 2일 서울 중앙병원에서 향년 68세로 한많은 생을 마감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제일 먼저 (저 세상에) 가려고 그래" 한숨섞인 체념과 함께 죽음을 만류하는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 할머니들을 뒤로하고, "저 세상에 가서는 열여섯 순결한 처녀로 다시 태어나 헌헌장부 임을 만나 백년해로 하시게"라고 한마디 간절함만을 남긴채 강덕경할머니는 끝내 숨을 거둔 것이다.

1929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강할머니는 겨우 열여섯살 때 일본군에게 끌려가 1년여 동안 위안부생활을 했다. 해방 후 귀국했지만 고향에 갈 수 없어 닥치는대로 날품팔이를 하며 사람들 눈을 피해 살아가야 했다. 그러다

방송가 소식

광주BBS '…미륵의 땅' 광주전남 PD상 '작품상'

불교광주방송이 개국 1주년 특집으로 제작 방송한 '남도삼백리 미륵의 땅(PD 김형만 96.3.2 방송)'이 한국프로듀서협회 광주·전남지부주최로 지난 1월31일 열린 '광주·전남 방송프로듀서상' 시상식에서 라디오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남도삼백리 미륵의 땅'은 남도지방에 산재한 이름없는 미륵불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현장 취재를 통해 밝혀낸 다큐멘터리. 불교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미륵신앙을 객관적 시각에서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불교광주방송의 '남도삼백리 미륵의 땅'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프로듀서상 본선에 광주·전남지역 대표작으로 추천됐다.

禪茶一如의 즐거움
茶園녹우정산 736-3782

日 비조좌신사

해마다 '온다 축제'

"그동안 백제불교전래 기려왔다"

한일고대사硏 오순제 소장 '확인'

일본 나라현의 비조사 근처에 있는 비조좌신사에서 백제불교의 전래를 기리는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일고대사문제연구소 오순제 소장은 "최근 비조좌신사에서 매년 2월 첫 일요일 '온다 축제'가 열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비조좌 신사가 백제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백제불교의 전래를 기리는 축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순제 소장에 따르면 '온다 축제'의 내용이 백제문화와 불교의 전래를 기리는 사천왕사의 '왔소 축제'와 흡사하고, 온다라는 단어도 우리말의 '온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온다 축제'의 내용은 백제 직조 기술의 전래와 백제 불교의 전래를 기념하는 것이며 해마다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봉행되고 있다.

비조사는 백제에서 보내온 불사리가 봉안돼 있고, 비조사의 창건에 맞춰 건립된 비조좌 신사에는 백제에서 전래된 직조기술과 불교문화를 기리는 백제 여신이 모셔져 있어 온다 축제가 백제불교의 전래를 기념하는 축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은〉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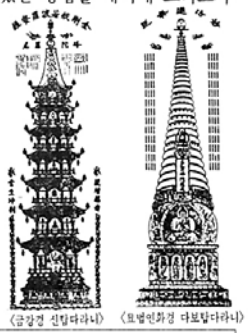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100분의 스님을 모십니다"

①전국 100군데 시·군단위로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 한 분씩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②신비의 불탑다라니는 현재 각사암별로 스님들께서 스님 신도들에게만 보급하고 있아오나 100분의 스님들께는 지역내의 전불자들에게 불탑다라니의 영험과 공덕을 알리고, 큰 부담없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이 방법은 불사에도 도움이 되고, 신도포교에도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③전화주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내용을 검토하신후 여건이 합당하시다는 판단이 되시면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일자를 정하여 직접 찾아 뵙겠읍니다. 한 지역에 한 분 스님께만 정책적인 배려를 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악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낳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단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히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십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리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불뉴스

전불련 조직강화특위 발족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은 지난 1일 대불청 만해교육관에서 제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단일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해에 이어 조직강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결의한 전불련은 이날 총회에서 청화스님(전불련 前 공동의장)과 지원스님(안산 보련사주지)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단일 의장에 지선스님, 제4대 집행위원장에 김춘길씨(前대불청 경기지구 회장)를 각각 선출했다. 또 '전불련조직 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불교개혁세력 재결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불교계지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결의했다. 3월부터는 불교관계법령, 미래불교의 가치, 한국불교의 역사적 평가 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법 무효 서명운동 전개

반민주악법 저지를 위한 불교비상시국회의(운영위원장 효림)는 지난 2일 연주암, 도선사, 보광사에서 등산객 및 신도를 대상으로 노동법 안기부법 전면 무효화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 불교비상시국회의는 구랍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6시30분 조계사 법당에서 시국법회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전국 3백여 사찰에 시국법문 요청 협조공문을 발송중에 있다.

파라미타, '법사은행' 제안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 포교연구실은 지난1월 30일~31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제1차 연구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국위원(프로그램분과·대원고 교사)은 지(권)역별 법사단 은행을 구성, 각 학교 및 사찰 학생회에 법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사은행제도는 각 지역내 법사를 모집, 교리 문화 환경 프로그램 의식 등의 전문법사를 양성해 1주 1사찰을 순회하며 법회를 지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국위원은 "각 사찰·학교학생회의 경우 지도법사의 유무에따라 학생회의 존립까지도 좌우된다"며 "법사단 은행제도가 실시되면 청소년법회 활성화는 물론 새싹불자 및 청·장년포교에도 큰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 천룡사지 유물 발견

경주 남산의 신라시대 고찰인 천룡사는 단탑가람이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세번 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건물터 2곳과 조선시대 건물터 9곳 등 모두 11곳의 건물터와 두 시대에 연결된 석축 3개, 고려시대 청동불상 1점 등 수십점의 유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의 관심을 모았던 통일신라시대 금당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창건 연대도 밝혀지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절에 오세요"

석왕사·봉은사등 노인대학 교리강좌등 '호응'
사찰 노인프로 태부족… '노령화시대' 대책 절실

설을 맞아 복조리를 엮는 할머니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할머니들의 부산함에는 아랑곳 없이 할아버지들은 내기장기에 여념이 없다. 석왕사노인대학을 찾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친구를 만나는 기쁨과 소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반나절 이상을 석왕사에서 보낸다.

최근 교양대학 개설 붐을 타고 활기를 띠고 있는 석왕사 봉은사 정수사 등 몇몇 사찰의 노인대학은 전통춤과 노래 기초교리강좌, 소일거리 제공 등으로 노인불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2천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1%를 차지, 본격적인 노령화사회로 진입한다는 95년 통계청조사결과를 미뤄볼 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몇몇 노인대학을 제외한 사찰에서의 노인포교 프로그램이 없다시피해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노인을 위한 포교프로그램은 도선사 연주암 삼막사 등에서의 무료급식 및 연례행사로 치르는 경로잔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노년층만을 위한 노인법회 또한 실례를 찾기 어렵다.

성불원 주지 현각스님(명륜종합사회복지관장)은 "경로당과 대화방 등 사찰단위에서 부담없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되기 쉬운 노인불자들을 사찰로 이끌어내는 방안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어린이법회와 연계해 노인불자들에게는 젊음과 가족의 정을, 어린이들에게는 노인불자들의 인생경험과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포교프로그램은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매월 1회 탑골공원 등지에서 3년째 노인잔치를 개최해 온 운월스님(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은 "노인불자들의 신행생활을 고려한 염불당과 기초교리강좌 개설을 통해 노인불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계종이 전법의해를 선포한 시점에서 종책차원의 노인포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도필선 기자〉

독거노인에 의료-복지서비스

대구불교사회복지회 '작은나눔 큰사랑운동' 펼쳐

대구불교사회복지회(회장 지도스님)는 오는 3월3일부터 대구시 남구 이천 1·2동과 봉덕 1·2·3동 거주 65세이상 만성질환 독거노인 60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복지회는 작년 11월 삼성그룹 산하 삼성재단에서 실시한 작은나눔 큰사랑운동에 통합프로그램을 신청, 지난달 24일 최종선정됨으로써 이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직접방문,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현재 동복지회는 삼성재단에서 지원하는 1천8백60만원과 자체조달 4천만원등 총 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그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매일 점심과 국 배달 △주2회 밑반찬 배달 △주1회 세탁서비스 △월1회 이·미용서비스 △방문의료서비스 △후원자와 독거노인간 결연 맺어주기 △자원봉사자 및 독거노인 모임등 7가지.

지도스님은 "공적부조에 의한 생활보호만으로는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없어 통합서비스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회는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중이다. (053)427-1907



◇대상을 수상한 이란씨가 본지 논설위원 법산스님으로부터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본사 제2회 신행수기공모 시상

대상 이란씨 우수상 이영자·박민수씨 '영예'

본사가 주최한 '제2회 신행수기공모' 시상식이 지난 3일 녹수청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홍파(종단협의회 부회장·관음종 총무원장)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본사 김광삼사장을 비롯 축하객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이란씨(46·서울 송파구 방이동)가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로 대상(유마상)을 받았고, 우수상에는 이영자(서울 강북구 수유5동), 박민수씨가(광주시 동구 지산동), 특별상은 장명화씨를 비롯 3명이 각각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본지 109호 참조〉

이번 신행수기 공모에는 총 82편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편이 예심을 거쳐 6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한편 본사는 오는 11월에도 '제3회 신행수기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돈받고 목사설교
16일간 불법방영
부산 동삼유선방송

부산 동삼유선방송(사장 박정규)이 동삼제일교회가 제작한 다락방전도회 유광수목사의 설교를 16일 동안이나 방영해 물의를 빚었다.

동산 1,2,3동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동삼유선방송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난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24시간 방영해 왔다는 것이다.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이익, 집단,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혹은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다.

동삼유선방송사 박정규사장도 위법임을 알면서도 일정액의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방영해 왔다는 것을 시인했다.

유선방송의 허가를 담당하는 영도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허가후 관리소홀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유을 목적으로 음란물이나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공공연히 방영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봉축기획단, 부처님오신날 표어 확정

조계종 봉축기획단(단장 혜창)은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를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로 확정했다. 이 표어는 기획단이 공모한 작품 가운데 당선작이며, 가작은 '깨달음은 내 가슴에 자비행은 이웃에'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맑고 따뜻하게'가 각각 선정됐다.

봉축기획단은 올해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전통과 현대의 조화 △종단과 국민이 나아갈 방향 제시 △불교교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연등축제를 전통종교축제의 전형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평일실시' 철회촉구 "교계 뜨겁다"
총무처장관 재답변 요청…조계사 규탄대회도

조계종총무원(원장 월주)은 공무원시험 평일실시와 관련 지난 4일 총무처 회신이 총무처는 지난 30일 "충분한 답변이라 볼 수 없다"며 재질의에 따른 회신을 요구했다.

재질의서에서 조계종은 "공무원시험 평일실시에 따른 약 10%의 직장수험생 응시기회 박탈하고 종교간 공존과 국민편의를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할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항의방문단을 보내겠다고 천명했다.

이에앞서 조계사 청년회(회장 남도희)는 지난 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영삼 정권의 특정종교 편향정책 시정을 위한 규탄대법회'를 개최했다. 총무처는 지난달 30일 '방학기간중에는 평일에도 시험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회신을 보내왔었다.

우리는선우 '용기백배캠프' 현장

"가족의 情 나눈 1박2일"
소년소녀가장-선우회원 32쌍 즐거운 만남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빨리 호각이나 불어주세요."

눈썰매타러 캠프간다는 소식을 들고 밤새 잠을 못이뤘다는 이창우군(동원초등 6년)이 자신과 짝을 이룬 친구의 허리를 꼭 껴안고 목청껏 외쳤다.

대부분 처음 타보는 눈썰매. 처음에는 겁먹은 표정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소녀가장들의 얼굴은 해맑은 웃음꽃으로 가득했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소년소녀가장 32명을 초청, 선우회원 32가족과 함께 '97 용기백배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자칫 외로움으로 삶의 의욕을 잃기 쉬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선우회원들과 또래의 만남을 통해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고자 마련됐다.

선우회원과 소년소녀 가장들이 한마음이 된채 밥도 짓고, 찌개도 끓이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됐다.



◇소년소녀가장들은 우리는선우 회원들과 한가족이 되어 신나게 눈썰매를 탔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그래도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은 오락시간. "빠른 음악에 맞춰 선우회원들과 신나게 몸을 흔들어대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허정란양(영림중 3)의 말이다.

신나게 1박2일을 보낸 소년소녀가장들은 기차에 몸을 실은채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소년소녀가장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혹시 꿈에 그리던 엄마 아빠와 함께 눈썰매를….

마음 물러서지 말라

무조건 멀어서. 물러서지 말라.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멀은에서 물러서지 말라. 일체만법이 바로 내마음에서 나고 든다. 주인공을 진실로 멀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주인공은 일체 만법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이며 원소이며 핵이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출가·재가 학인 모집

21세기 불교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접수기간 : 1월15일 ~ 2월 25일 까지
■ 입학자격 : ① 대학이상 졸업자 ②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 불교 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자 (특별전형)
■ 모집구분 : ① 출강(부산) 수·금요일 등교 ② 통신반(전국) 4째 일요일 등교
■ 교육기간 : 2년(4학기) 출강반·통신반 동일
■ 졸업특전 : ① 졸업증서 수여 ② 5종법사 자격증 수여 ③ 법화경 연구소 학술위원 위촉 ④ 강원(교양대)개원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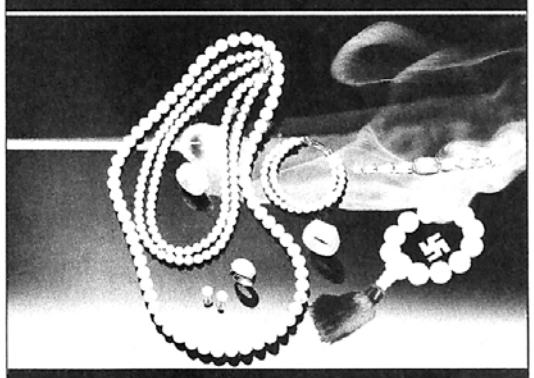
※ 자세한 입학 안내서 우편으로 청구하면 빠른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우)701-600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한국승가대학원 교무처
(대)053-952-8711 교수직통 017-501-8711

불기 2541년 1월 일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공 덕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스트레스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4,50대 주부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 장타력, 집중력, 판단력 골프머리가 잡혀갑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고 독

어둠이
그리움되어
도시의 끝 자락을
물들입니다.

침묵과 고뇌의 빔
수없이
적막을 깨뜨리고
공허한 가슴에
소슬한 바람이
그대의 맑고 깨끗한 이슬이 되어
가슴으로 젖어 듭니다.
슬잎바람
달빛 향기 스미는
그대 창가에 풀잎 끝 마다
그리움으로 엉키어
가만히 내려앉은
방 이슬이 되겠습니다.
머얼리 파랑게 부셔져 내린
파도를 업고
서로의 먼 눈빛으로
젖어

고독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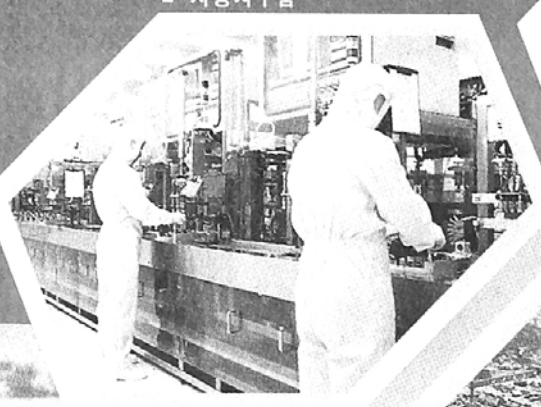
이생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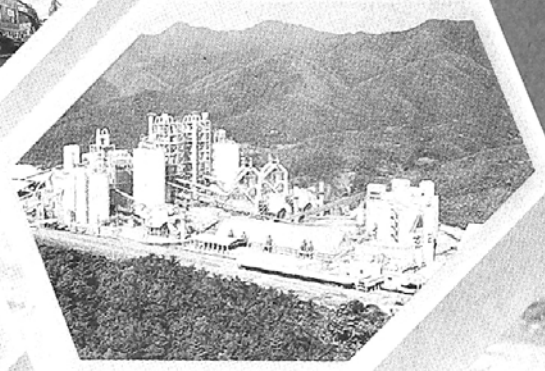
■ 건설중장비



■ 자동차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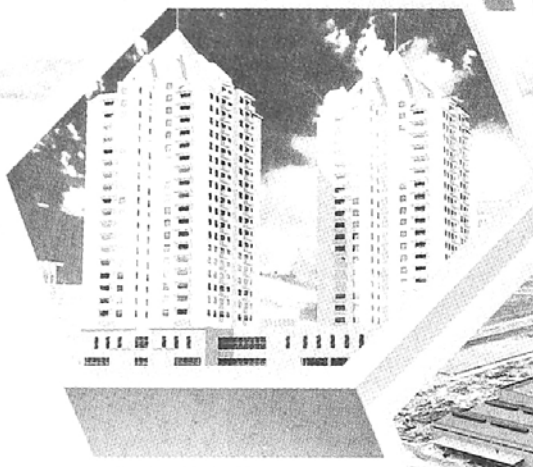


■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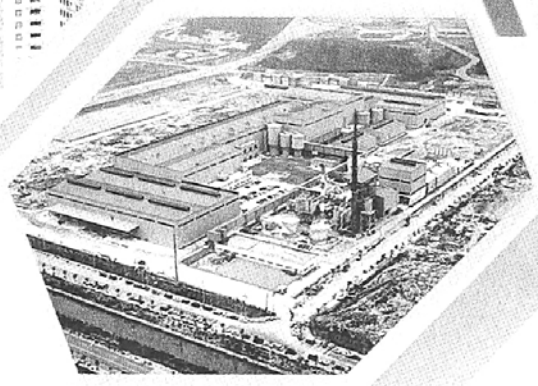




■조 선



■건설 · 엔지니어링



■펄프제지



■해 운

競爭과 共存理念을 追求하고 自我完成을 가다듬으면서 無限한 可能性과 變化를 豫告하는 21世紀에 對應하는 企業

漢拏는 道德經營, 環境親和經營,
輸出提高經營을 旗幟로 國家社會에
이바지하고 國家經濟構築에 寄與하겠습니다.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그룹 | · 한라중공업(주) · 만도기계(주) · 한라건설(주) · 한라시멘트(주) · 한라공조(주) · 한라해운(주) · 한라자원(주) · 한라콘크리트(주) · 한라창업투자(주)
· (주)캄코 · (주)마이스터 · 한라정보시스템(주) · 한라펄프제지(주) · (주)한라일렉트로닉스 · 한라산업기술(주) · 마르코폴로호텔(주) · 학교법인 배달학원